

PORTFOLIO · 2026

이동원 포트폴리오

핀테크·결제 8년+, EV충전 플랫폼 PO · 경력 16년차
전략·데이터·운영을 잇고, 필요한 도구는 AI로 직접 만드는 빌더형 PO

핀테크·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EV충전 플랫폼

데이터 기반 PO

AI 자동화 빌더

이동원 Dongwon Lee

스칼라데이터 플랫폼팀 총괄 PO

프로젝트 상세는 2dw.pages.de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ebn77@gmail.com · github.com/webn77

16년의 경력을 네 개의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로필 → 대표 프로젝트 → AI Tech → 기여 방안 순으로 이어집니다. 프로젝트는 한 건에 한 장씩, 실제 산출물 화면을 함께 실었습니다.

01 프로필 · 핵심 역량

P.03

한 줄 정의 · 역량 4축 · 정량 성과 · 커리어 3사

02 대표 프로젝트

P.07

회사별 프로젝트를 실제 산출물 화면과 함께

03 AI Tech — 직접 만든 도구 23종

P.39

실제 운영 중인 도구 10종은 화면과 함께

04 일하는 방식 · 기여 방안

P.52

기술 스택 · 채용담당자에게 드리는 제안

한 줄 요약

문제를 데이터로 진단하고 정책·구조로 풀어 지표로 증명합니다. 필요한 도구는 기다리지 않고 AI로 직접 만들어 씁니다.

01

PROFILE

프로필 · 핵심 역량

핀테크·결제에서 시작해 EV충전 플랫폼 총괄 PO까지,
규제 산업에서 0→1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16년차

총 경력

8년+

핀테크·결제 도메인

3사

스칼라데이터 · 컬리페이 · 코나아이

전략과 실행을 함께 하고, 필요한 도구는 직접 만듭니다.

핀테크·결제 8년+, EV충전 플랫폼(모두충전·모두페이) PO, 경력 16년차. 결제·선불·상품권 라이선스부터 EV충전 플랫폼 0→1 신규 사업, 데이터 기반 정책 재설계까지 담당했습니다. 더해, 반복·병목이 보이면 필요한 운영 도구를 AI로 직접 만들어(23종) 팀의 시간을 되돌립니다.

CAPABILITY 01

핀테크·결제 도메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 간편결제·인증, 정산·컴플라이언스, 지역화폐

CAPABILITY 02

플랫폼 PO · 0→1

EV충전 플랫폼 총괄, 신규 구독사업 런칭, 어드민·백오피스 재설계

CAPABILITY 03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전사 지표 관리, 세그먼트·퍼널·정책으로 성장을 지표로 증명

CAPABILITY 04

AI 자동화 빌더

필요한 운영 도구를 AI로 직접 만들어 23종 운영

성과는 숫자로 남겼습니다.

가설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정책·구조로 풀어, 매출·재무·운영 지표의 변화로 증명했습니다.

20%↑

EV 충전 매출 성장

고객 세그먼트 5종 재설계 · 가격 정책·퍼널 개편

2억

포인트 부채 절감

유효기간 이원화·소멸 사이클 설계

5.7배

컬리캐시 판매 성장

세그먼트 노출 전략 + BigQuery·Looker 운영

3,000대

환경부 충전기 통합

제조사 4곳·9개 모델을 단일 소스로

핵심

지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적자 구조였던 모두의충전의 손익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전사 데이터와 핵심 지표를 직접 관리**하며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결제 인프라에서 시작해, 플랫폼 총괄까지.

2024 - 현재

스칼라데이터

플랫폼팀 총괄 PO

모두의충전·모두페이 플랫폼을 총괄하며, 현재 **전사 데이터와 핵심 지표(키메트릭스)**를 직접 관리합니다. 모두의충전 세그먼트 분리로 매출을 끌어올렸고, BMW Charging 앱 개편과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공공 프로젝트 PM**을 맡았습니다. 신규 구독 사업도 0→1로 런칭했습니다.

- EV충전 플랫폼 전반 + 신규 구독 **0→1**(월 1억)
-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공공 프로젝트 PM** · BMW Charging 앱 개편
- 매출 20%↑ · 부채 2억↓ · 적자→흑자 손익 개선

2022 - 2024

컬리페이

컬리카시 & 상품권 PO

컬리카시와 상품권 사업을 맡았습니다. 컬리카시를 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감원 심사를 직접 통과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그 기반 위에서 **모바일상품권을 B2B·B2C로 동시 런칭**하고 **실물상품권까지 0→1로 구축**해 온·오프라인을 연결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 취득 (금감원 심사 통과)
- 모바일상품권 **B2B·B2C 동시 런칭**, 판매 5.7배
- 실물상품권 **0→1 구축** · 컬리카시 누적 충전금 1억

2018 - 2022

코나아이

백오피스기획 팀장

지역화폐 플랫폼과 코나카드 플랫폼을 운영하며 백오피스를 전사 단위로 개선했습니다. 선불충전금·복지포인트·지류상품권 등 결제 인프라를 0→1로 다수 구축했고, 정부·지자체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팀장으로 조직을 리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 거래액 14조 원이 흐르는 플랫폼**의 구조를 다뤘습니다.

- **지역화폐·코나카드 플랫폼 운영** — 거래액 14조
- **31개 지자체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200만 건
- 다수 이해관계자·대규모 트래픽 안정 운영

2012 - 2018 펜타브리드 · 메가존 서비스 기획·운영 PM — 커머스 UX 설계, 프로젝트 관리

2009 - 2012 코엑스 · 더스토리 인스퍼레이션 · 럼퍼스 웹·커머스 기획 — 전사 플랫폼 UX, 글로벌 캠페인

02

SELECTED WORK

대표 프로젝트 29건

회사별로 맡은 프로젝트를 실제 산출물 화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모든 항목은 문제 → 실행 → 지표 순으로 기술했습니다.

29건

실무 프로젝트 전체

11 · 6 · 12

스칼라데이터 · 컬리페이 · 코나아이

0→1

신규 사업·인프라 다수

2024 - 현재

스칼라데이터

플랫폼팀 총괄 PO

모두의충전·모두페이 플랫폼을 총괄하며, 현재 전사 데이터와 핵심 지표(키메트릭스)를 직접 관리합니다. 모두의충전 세그먼트 분리로 매출을 끌어올렸고, BMW Charging 앱 개편과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공공 프로젝트 PM을 맡았습니다. 신규 구독 사업도 0→1로 런칭했습니다.

11건

대표 프로젝트

20%↑

EV 충전 매출 성장

3,000대

환경부 충전기 통합

적자→흑자

손익 구조 개선

이 프로젝트들은 하나의 지표를 밀어 올린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입력 지표 — 팀이 움직이는 것

북극성

후행 지표

세그먼트 재설계

고객 충전자가 수익 고객이 아님을 데이터로 확인

신규 유입

타임특가로 첫 이용 · 적립 **10%→3%**

포인트 소멸 정책

유효기간 이원화 + 소멸 알림톡 3회

재방문

포인트 페이지 재방문 **2배**

멤버십 포인트 전환

KT·블루멤버스를 한 번의 탭으로 동시 전환

충전 비용 절감

누적 전환금 **1억** · 월평균 1,600만

충전소 검색 개선

장소 키워드 검색 + 거리 기반 정렬

탐색 전환

검색 후 선택률 **5배↑**

미납 인지·지급 경로

알림톡·장기 SMS·홈 표시 + 별도 계좌

미납 회수

미납 잔액 **2,000만 → 900만 원대**

NORTH STAR

도심 충전 반복 이용자

마진이 나는 도심 충전기를
월 2회 이상 이용한 고객 수

RESULT

60억

충전 결제 매출
전년 대비 **20% 성장**

입력 지표는 팀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만 뒀습니다. 북극성은 결과값이라 직접 건드리지 않고, 네 개의 입력으로만 밀어 올렸습니다.

디자이너·프론트 없이 기획·프론트·QA를 직접 수행해 정식 오픈했습니다.

법인 전기차의 충전비는 회사 비용인데, **환경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충전 사업자는 계정당 카드를 한 장만 발급**합니다. 전기차는 충전카드로 인증해 쓰기 때문에,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법인은 차량별 충전요금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법인 계정 아래 여러 장의 카드를 묶는 구조로 설계하고, 시장조사·PRD부터 프로토타입·개발·검증까지 공정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디자이너·프론트 개발자 배정 없이 **기획·프론트엔드·QA는 AI를 도구로 삼아 직접** 하고, **백엔드는 화면 단위로 API 규격을 정의해 요청**한 뒤 개발된 API를 받아 연동했습니다.

문제 계정 하나에 충전카드 한 장

환경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충전 사업자가 같은 구조 — 시장 전체의 공백

분석 차량이 여러 대인 법인은 관리가 불가능

어떤 차가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어 회사 비용 정산이 안 된다

실행 법인 계정 아래 여러 카드를 묶는 구조 설계

기획·프론트·QA는 직접, 백엔드는 화면 단위 API 규격을 정의해 요청

성과 만디렌트카 도입 문의 — 개발 중 수요 확인

일정 내 정식 오픈 · 화면설계 51개

01 서비스 소개

카드, 차량, 결제와 정산을
하나의 법인 계정으로 연결합니다.



모두페이 Biz 서비스 소개서 | 서비스 소개

06

카드·차량·결제수단·충전내역·정산 리포트를 하나의 법인 계정으로 연결한 구조

고객 세그먼트·타임특가

모두의충전 · 스칼라데이터 · 2024.05 - 2025.12

문제는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충전하느냐였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10%를 적립하고 있었고, 그 비용은 **마진이 없는 환경부 충전기**로 물리고 있었습니다. Mixpanel로 충전 시간대·충전소 유형·결제 금액을 교차 분석해 **핵심 고객이 택시·도심 배송**이라는 것과, 이들이 자주 쓰는 **도심 충전기는 마진이 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적립률을 10%에서 3%로 낮추고 줄인 예산을 타임특가로 도심 충전기에 집중해, **2025년 5월 손익을 흑자로** 돌렸습니다.

문제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준 10% 적립

마진이 없는 환경부 충전기에 적립 비용이 물리고 있었다

분석 핵심 고객은 택시·도심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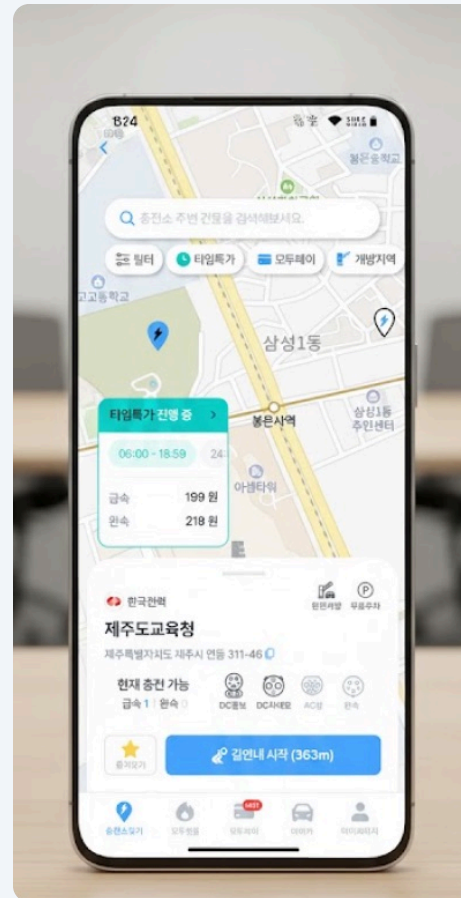
이들이 자주 쓰는 도심 충전기는 마진이 난다

실행 적립률 10% → 3%, 줄인 예산을 타임특가로

도심 충전 사업자와 제휴해 마진이 나는 충전기로 유도

성과 적립률 10% → 3% 인하

도심 +9.3% · 30만+ +25.2% · 타임특가 전체 결제의 10.2%



타임특가 진행중 — 지도에서 바로 확인

운영 체계 수립

모두의충전 · 스칼라데이터 · 2024.05 – 2024.06

운영 불안을 구조 문제로 정의해 장애를 월 5건 이상에서 1건 이하로 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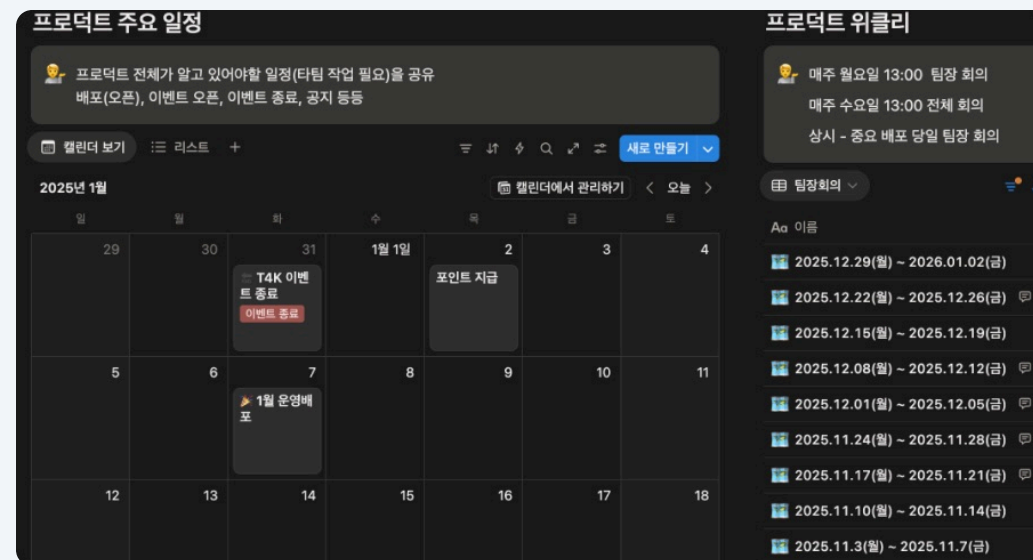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팀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은 있었으나 **실행 기준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투명한 운영을 '복잡한 관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일**로 정의하고, 문제마다 맞는 장치를 연결해 배포·협업 체계를 재설계했습니다. 장애는 **월 5건 이상에서 1건 이하**로 줄었고 CS와 협업 방식까지 함께 바뀌었습니다.

문제 돌아가는 시스템, 지쳐가는 팀
문제의식은 있었으나 실행 기준의 부재

분석 투명한 운영 = 예측 가능한 상태
복잡한 관리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문제로 재정의

실행 문제마다 맞는 장치를 연결한 운영 재설계
2주 스프린트·4주 배포 주기 도입, 장애 대응 트랙 분리

성과 4주 배포 주기 정착
장애 월 5건+ → 1건 이하 · CS 문의 50%↓



프로젝트 주요 일정 · 위클리 회의 체계

어드민 공식화 재구축

모두의충전 · 스칼라데이터 · 2024.07 - 2024.09

이미 쓰이던 비공식 도구를 공식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공식 어드민보다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어 쓰던 비공식 도구가 더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팀이 필요한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새로 설계하는 대신 실무에서 검증된 흐름을 공식 체계로 전환하고, 모듈화와 권한 체계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신규 기능 개발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문제 공식보다 더 많이 쓰이던 비공식 도구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어 쓰던 어드민이 실무의 표준

분석 팀에 필요한 것은 이미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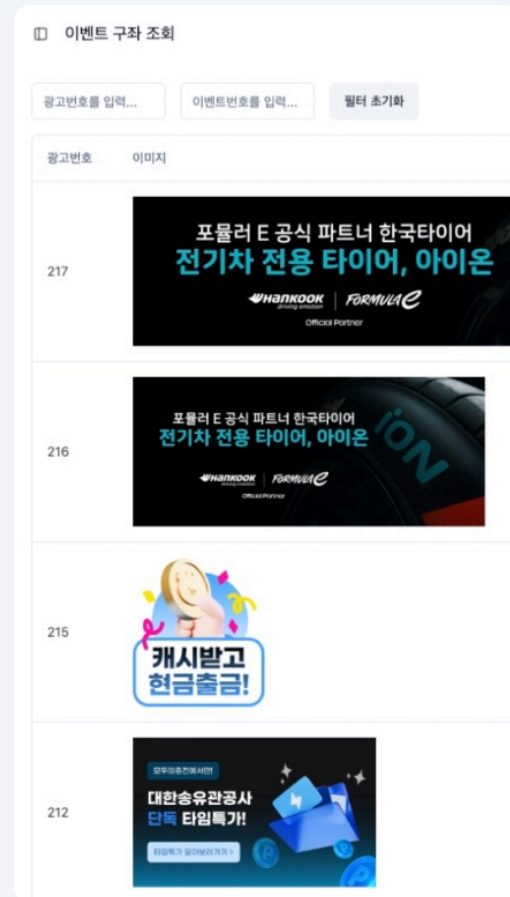
새로 설계하는 대신 실무에서 검증된 흐름을 공식화

실행 모듈화와 권한 체계 두 축에 집중

UI·API 템플릿화 + 역할별 접근 제어(RBAC) 도입

성과 공식 어드민 1개로 통합

신규 기능 개발 기간 50%↓ · RBAC 도입 · 운영자 직접 처리



이벤트 구좌 조회 — 광고 이미지 모듈화 관리

포인트 정책 재설계

모두의충전 · 스칼라데이터 · 2024.10 - 2024.12

무제한 포인트가 이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 부채 2억 절감.

포인트에 유효기간이 없어 **미사용 포인트는 부채로 쌓이고** 고객은 포인트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정책 대신 **이원화 정책으로 단순하게 시작**하고, 소멸 전 알림을 리텐션 고리로 설계했습니다. **포인트 부채 2억**을 줄이면서 포인트 내역 페이지 **재방문을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문제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가 쌓은 재무 부채

고객은 포인트의 존재 자체를 망각

분석 제약이 오히려 사용의 트리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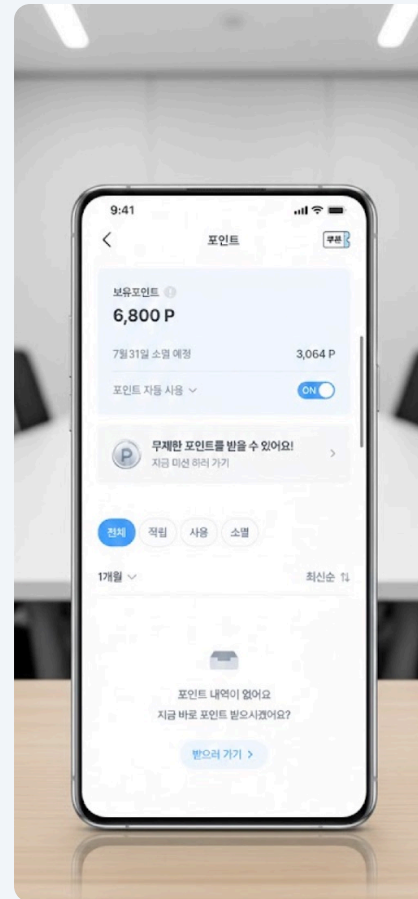
무제한 포인트가 이탈을 만들던 구조

실행 유효기간 이원화 + 소멸 전 알림 설계

적립 경로별 수명 부여, 알림톡을 리텐션 고리로 활용

성과 포인트 부채 2억↓

90일 / 5년 이원화 적용 · 재방문 2배 · Top 5 진입



소멸 예정 포인트 표시 · 자동 사용 설정 · 탭별 내역 구분

BMW Charging 앱 개편

스칼라데이터 · 2024.10 - 2025.02

차지비 템플릿 기반 앱을 **BMW 전용 경험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BMW 고객이 쓰는 앱이었지만 **차지비 템플릿 기반**이라 다른 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능 몇 개를 고칠 문제가 아니라 앱의 역할 자체가 브랜드 기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앱을 **BMW 고객을 위한 전용 접점**으로 다시 정의하고 가입·탐색·지도·카드 흐름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BMW 측 높은 만족도로 오픈했습니다.

문제 BMW답지 않던 BMW 고객의 앱

차지비 템플릿 기반이라 타 앱과 차별점 부재

분석 기능 보완이 아닌 역할의 재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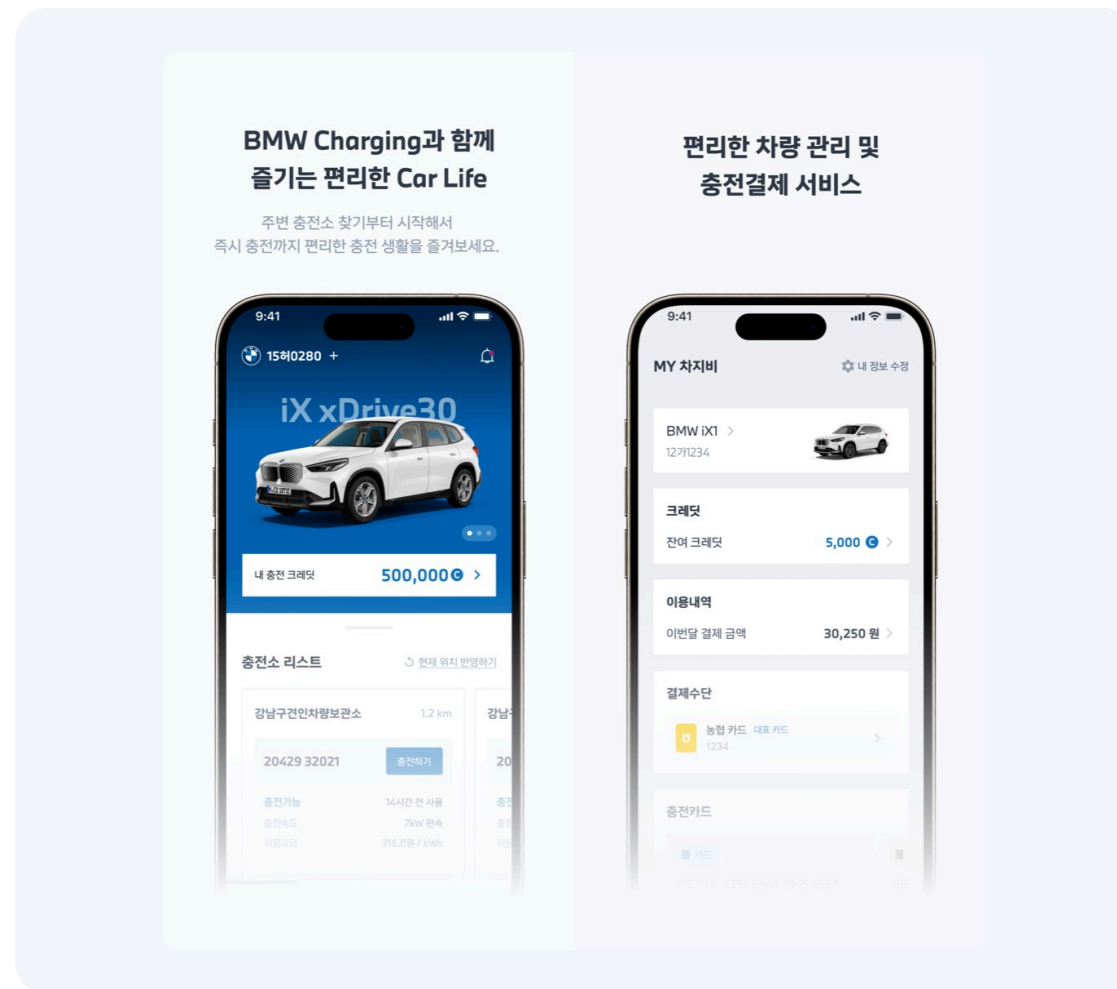
충전 도구가 아니라 브랜드를 잇는 전용 접점이어야 성립

실행 가입·탐색·지도·카드 흐름 전면 개편

가입 정보 최소화, 충전소 찾기 우선 노출, 구글 → 네이버 지도

성과 가입 필수 입력 3개

충전소 찾기 우선 · 지도 네이버 교체 · BMW 만족도 높게 오픈



BMW 브랜드가 반영된 홈 화면과 MY 차지비 — 차량 이미지·크레딧·충전소 리스트 연결

전기 중고차 구독 0→1

모두의충전 · 스칼라데이터 · 2025.01 - 2025.03

비어 있던 전기 중고차 구독 시장에서 월 1억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충전 단건 수익에서 벗어날 신사업이 필요했고, **전기 중고차 구독 시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0에서 시작했는데 예상한 고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 고객이 오히려 더 잘 맞는 고객**이었고, 그것을 성장 경로로 삼았습니다. 계약·인수·반납 전 과정을 앱 안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해 **60대 운영·월 1억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문제 충전 단건 수익의 한계

전기 중고차 구독은 사업자가 없는 공백 시장

분석 예상과 다른 고객층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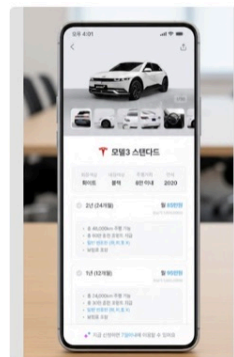
실제로 온 고객이 오히려 더 잘 맞는 고객

실행 비대면 전 과정을 앱 안에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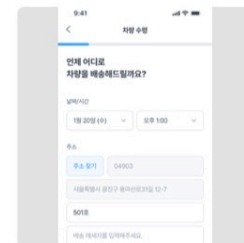
계약·인수·반납까지 대면 없이 완결되도록 설계

성과 운영 차량 60대 · 월 수익 1억 (운영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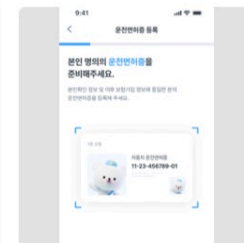
대면 점점 0으로 프로세스 정착



01 차량 선택



02 배송 정보 입력



03 운전면허증 등록

차량 선택 → 운전면허증 등록 → 배송 정보 입력까지 앱 안에서 완결

환경부 급속충전기 통합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 스칼라데이터 · 2025.03 - 2025.12

현장에 나가 직접 써보고, 앞으로 고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조사 4곳이 만든 **9개 모델**이 저마다 다른 화면을 갖고 있었고, 조작 화면은 10년 가까이 그대로였습니다. PM을 맡은 뒤 **안산 현장에 나가 충전기를 직접 써보고** 이용자와 운영사에 무엇이 불편한지 물었습니다. 듀얼 충전기에서 화면을 나눠 쓰다 보니 금액 입력조차 어렵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8개로 갈라져 있던 소스를 하나로 합치고 무공해차 누리집과 연동**해, 문제가 보이면 **3,000대 전체에 한 번에 반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고친 것보다 앞으로 고칠 수 있게 된 것이 더 큰 성과였습니다.

문제 10년 가까이 그대로였던 조작 화면

제조사 4곳·9모델·8개 소스로 갈라져 고치기도 어려웠다

분석 답은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다

안산에서 직접 충전해보고 이용자·운영사에 불편을 물었다

실행 8개 소스를 하나로 합치고 누리집과 연동

진행 표시 고정 · 입력은 팝업 분리 · 낮과 밤 시인성까지

성과 8개 → 단일 소스 통합

3,000대 일괄 반영 구조 확보 · 선행 30대 안정 작동 · 감리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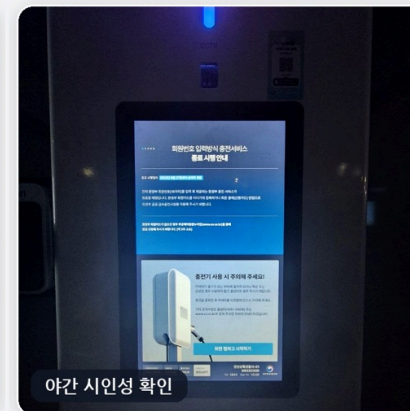
가로형 화면 대응



세로형 화면 최적화



듀얼 스크린 적용



야간 시인성 확인

가로·세로·듀얼 스크린·야간 시인성까지 — 단일 소스로 모든 환경에 대응

멤버십 포인트 전환

모두의충전 · 스칼라데이터 · 2025.05 – 2025.06

새 경로를 만들지 않고 기존 습관 안에 넣어 6개월 만에 누적 1억을 만들었습니다.

제휴사를 각각 연결하는 방식이 당연해 보였지만, 고객은 **제휴사 수만큼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답은 새 기능이 아니라 **이미 반복되고 있는 고객 습관 안에** 있었습니다. 새 경로를 만드는 대신 매달 하던 KT 전환 안에 블루멤버스를 넣어, **한 번의 탭으로 두 포인트를 함께 전환**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누적 전환금 1억을 달성했습니다.

문제 제휴사 수만큼 반복되는 고객 행동

각각 연결하는 방식이 당연해 보이던 구조

분석 답은 이미 반복되던 고객 습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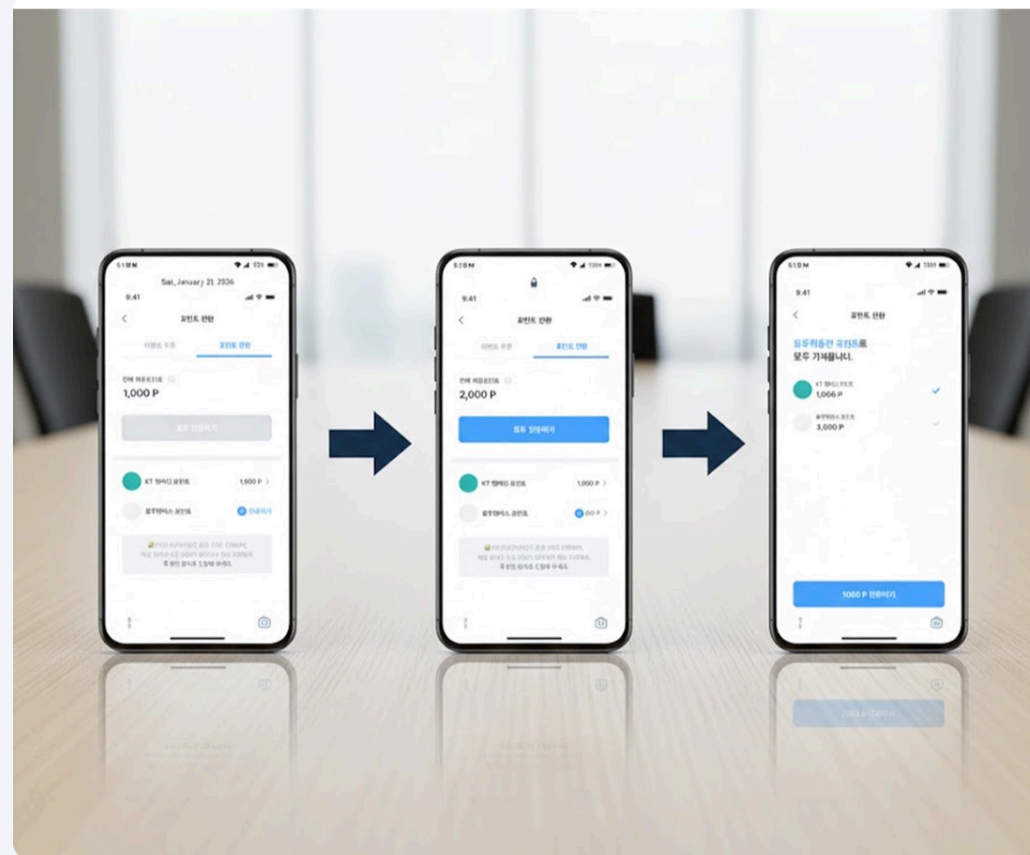
매달 KT 포인트를 전환하던 행동이 이미 있었다

실행 한 번의 탭으로 두 포인트 동시 전환

현대블루멤버스·KT 멤버십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

성과 1탭 동시 전환 정착

Ci 인증 1회로 반복 인증 제거 · 누적 전환금 1억 (6개월)



KT 멤버십 →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한 번의 탭으로 동시에 전환하는 플로우

충전소 검색 개선

모두의충전 · 스칼라데이터 · 2025.07 - 2025.08

고객이 떠올리는 말로 찾게 하자 충전소 선택률이 5배가 됐습니다.

국내 EV 유저의 20%가 쓰는 앱에서 **검색 이후 대부분이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고객이 찾는 방식과 앱이 보여주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고객은 충전소명이 아니라 장소명으로 떠올립니다. 장소 키워드 검색과 거리 기반 정렬을 도입해 **충전소 선택률 5배**로 이어졌습니다.

문제 검색은 하는데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던 흐름

국내 EV 유저 20%가 쓰는 앱에서 검색 이후 이탈

분석 고객이 찾는 방식과 앱이 보여주는 방식의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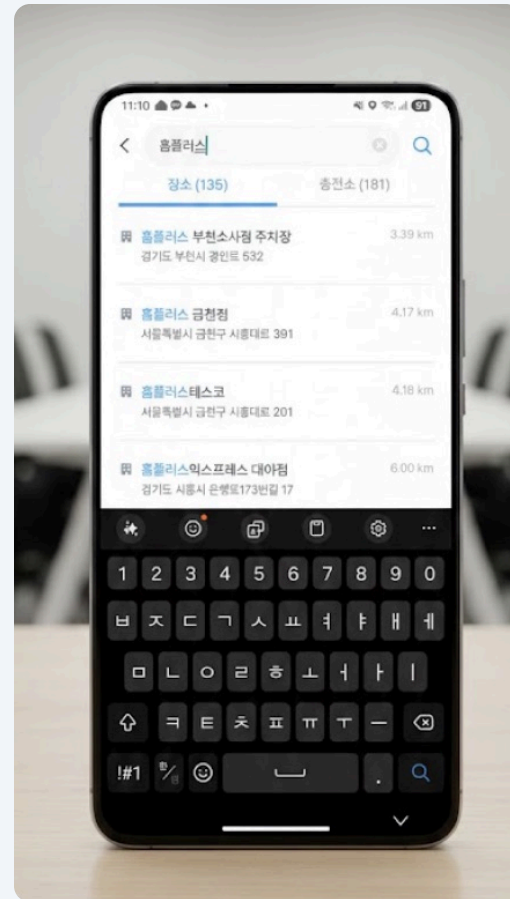
충전소명이 아니라 장소명으로 떠올린다

실행 장소 키워드 검색과 거리 기반 정렬 도입

고객 탐색 패턴에 맞춰 검색 로직 재설계

성과 홈플러스 검색 → 장소 135개 노출

가까운 충전소 우선 노출 · 충전소 선택률 5배 ↑



홈플러스 검색 시 장소 135개·충전소 181개가 정확하게 노출되는 개선 결과

2022 - 2024

컬리페이

컬리카시 & 상품권 PO

컬리카시와 상품권 사업을 맡았습니다. 컬리카시를 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감원 심사를 직접 통과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그 기반 위에서 모바일상품권을 B2B·B2C로 동시 런칭하고 실물상품권까지 0→1로 구축해 온·오프라인을 연결했습니다.

5.7배

모바일상품권 판매 성장

1억

컬리카시 누적 충전금

0→1

실물상품권 구축

라이선스

선불전자지급수단 취득

팀이 3배로 커지는 과정에서 **협업 기준을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문제 커지는 팀, 제각각인 일하는 방식

실행 사람이 아닌 구조를 바꾸는 접근

성과 온보딩 기간 50% 단축

		11	12
스프린트			
릴리스			
▼ 🔗 LONDON-51 [프론트, core] 전달하기 개선 완료 ✓ LONDON-170 [분석] 기술분석 완료 👤 ✓ LONDON-91 [분석]전달하기 개선 완료 👤 ✓ LONDON-150 [리뷰]전달하기 리뷰(형준, CEO) 완료 👤 ✓ LONDON-92 [기획]상품권 전달 내역 완료 👤 ✓ LONDON-94 [기획]상품권 주문 취소 분기 처리 완료 👤 ✓ LONDON-101 [디자인]전달하기 개선 완료 ✓ LONDON-337 [분석] 전체 일정 계획 완료 👤 ✓ LONDON-340 [core] 개발 완료 👤 ✓ LONDON-341 [프론트] 개발 완료 👤 ✓ LONDON-345 [프론트] dev api 연동 완료 👤 ✓ LONDON-343 [qa] stg qa 준비 완료 👤 ✓ LONDON-342 [qa] stg qa 완료 👤			

이동원 · 포트폴리오 | 대표 프로젝트

간편결제 등록 흐름 설계

컬리페이 · 2022.08 - 2022.09

인증 하나가 아니라 등록 흐름 전체를 결제 맥락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간편결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등록 흐름부터 매끄러워야 했습니다. 문제는 인증 하나가 아니라 **회원 인증·카드등록·계좌등록 흐름 전체가 결제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능 연동보다 **등록 경험을 먼저 설계**해 인앱 인증 구조로 외부 앱 전환을 없앴습니다. 등록 이탈은 줄고 결제 전환은 높아졌습니다.

문제 결제 맥락과 어긋난 등록 흐름

회원인증·카드등록·계좌등록 전반이 결제와 불일치

분석 인증 하나가 아니라 흐름 전체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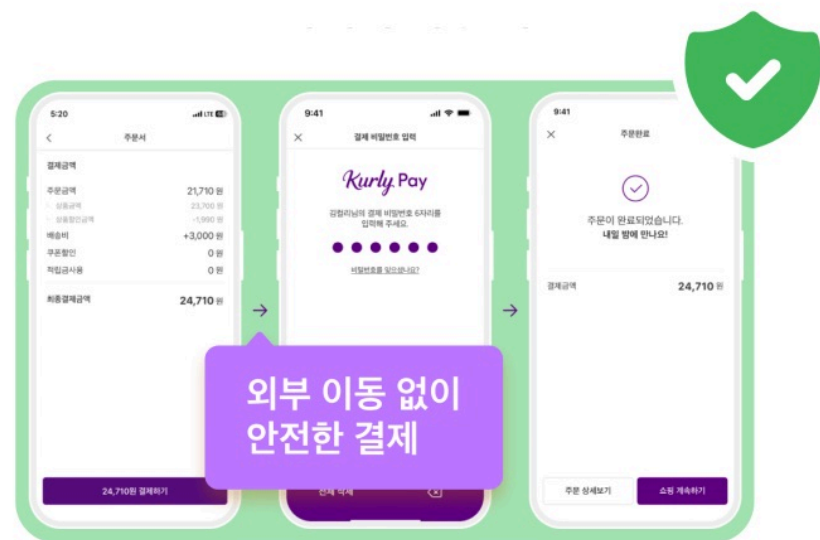
기능 연동보다 등록 경험 설계가 선행 조건

실행 인앱 인증 구조로 외부 앱 전환 제거

회원인증부터 카드·계좌 등록까지 전 구간 가이드

성과 등록 이탈률 25% 감소

결제 전환율 20% 향상 · 외부 앱 전환 구간 0



외부 이동 없이 안전한 결제 — 컬리페이 인앱 인증 흐름

모바일상품권 내재화

컬리 모바일상품권 · 컬리페이 · 2023.05 – 2023.12

상품권 인프라를 직접 내재화해 B2B·B2C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는 확보했지만 이를 더 많은 고객이 쓰게 만들 확장 수단이 없었습니다.

외부 솔루션으로는 B2B와 B2C에 같은 경험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선물 경험을 만들려면 인프라부터 직접 가져와야 했습니다. 상품권 번호 엔진부터 선물 전달 플로우까지 직접 설계해 임직원 복지 시장 첫 런칭까지 만들었습니다.

문제 라이선스는 있으나 부재한 확장 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더 많은 고객이 쓰게 할 경로 부재

분석 외부 솔루션으로는 불가능한 동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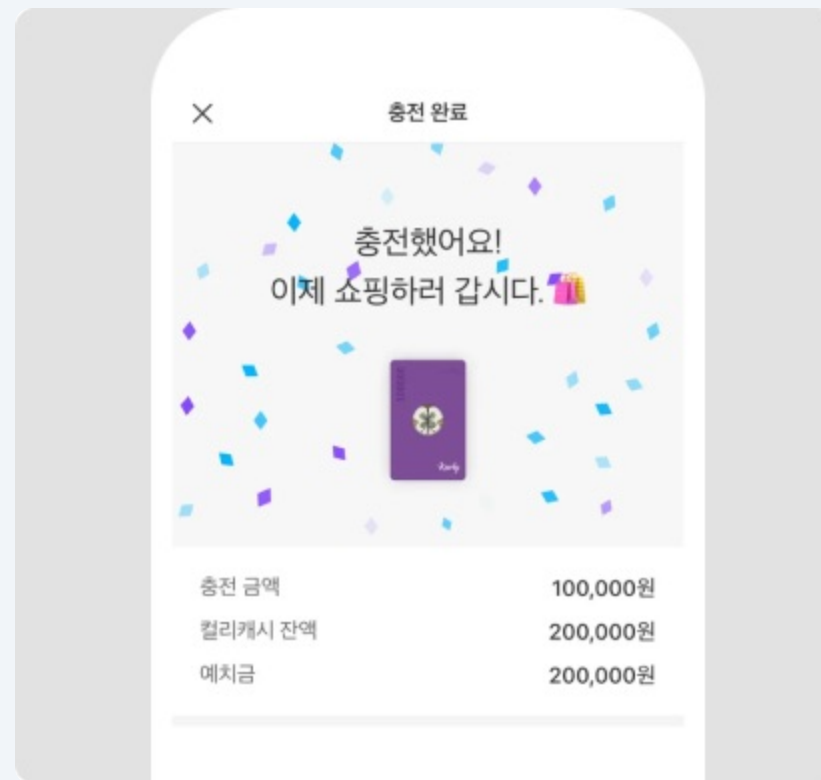
B2B와 B2C에 같은 선물 경험을 주려면 인프라 내재화가 전제

실행 번호 엔진부터 선물 전달 플로우까지 자체 구축

발급·전달·충전 전 과정 직접 설계

성과 관계사 3곳 + 임직원 복지 런칭

6개월 운영으로 정책 보완 · 1년 뒤 판매량 5.7배의 기반



상품권 충전 완료 화면

모바일상품권 그로스

컬리 모바일상품권 · 컬리페이 · 2024.01 - 2024.05

고객이 원래 다니는 길 위에 놓아 판매량 5.7배를 만들었습니다.

출시했지만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외부 홍보는 규제로 막혀 있었고, 배너·구좌·퀵메뉴 **단기 이벤트**는 끝나면 **제자리**였습니다. 고객 행동 데이터를 보니 결제수단·포인트를 확인하러 **반드시 들르는 자리**가 **마이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 상품권을 고정으로 놓고 상품권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장보기 전 충전**이라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외부 홍보 없이 **1년 만에 판매량 5.7배**입니다.

문제 출시했으나 거의 팔리지 않던 상품권

외부 홍보는 규제로 막혀 있었다

분석 단기 이벤트는 끝나면 제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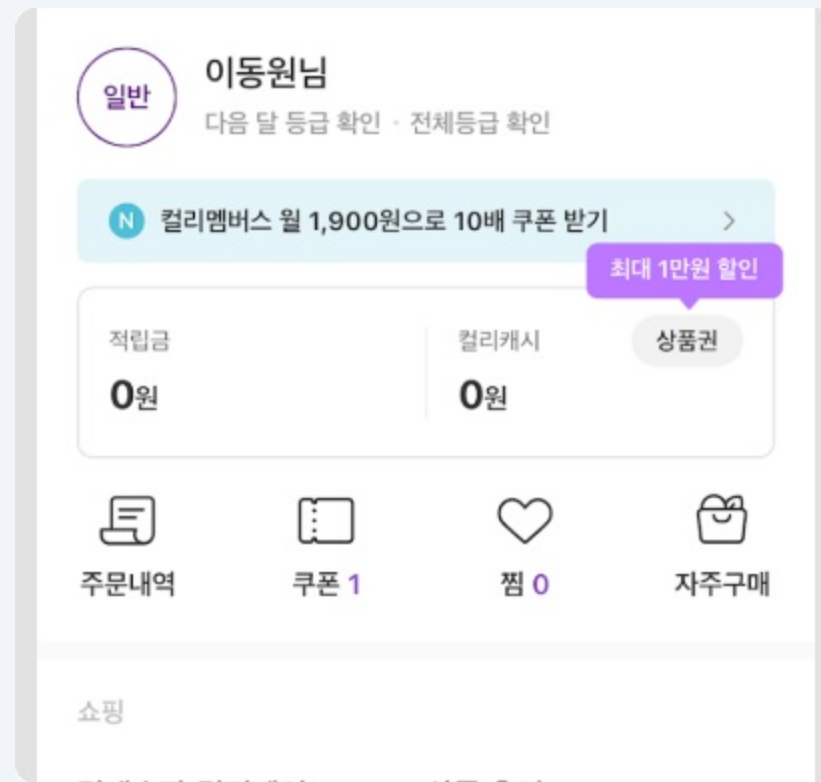
결제수단·포인트 확인차 반드시 들르는 마이페이지를 발견

실행 고정 노출 + 상품권 카테고리 신설

장보기 전 충전이라는 습관 동선을 만들

성과 판매량 1년 만에 5.7배

컬리캐시 1억 달성 · 장보기 전 충전 습관 형성 — 외부 홍보 0



마이페이지 — 상품권 탭 노출

실물상품권 0→1

컬리 실물상품권 · 컬리페이 · 2024.01 - 2024.05

모바일 인프라 위에 **실물 카드 선물 경험**을 얻었습니다.

선물 경험은 모바일보다 **실물이 더 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물 상품권은 공정마다 원가가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마진이 아니라 **CAC 관점**으로 보니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원가 산정부터 물류 연동까지 처음 다루는 오프라인 공정을 직접 설계해 런칭했고, 동시에 **오프라인 배송 품질의 한계**도 실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문제 모바일에 머문 선물 경험

실물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가설

분석 마진이 아닌 CAC 관점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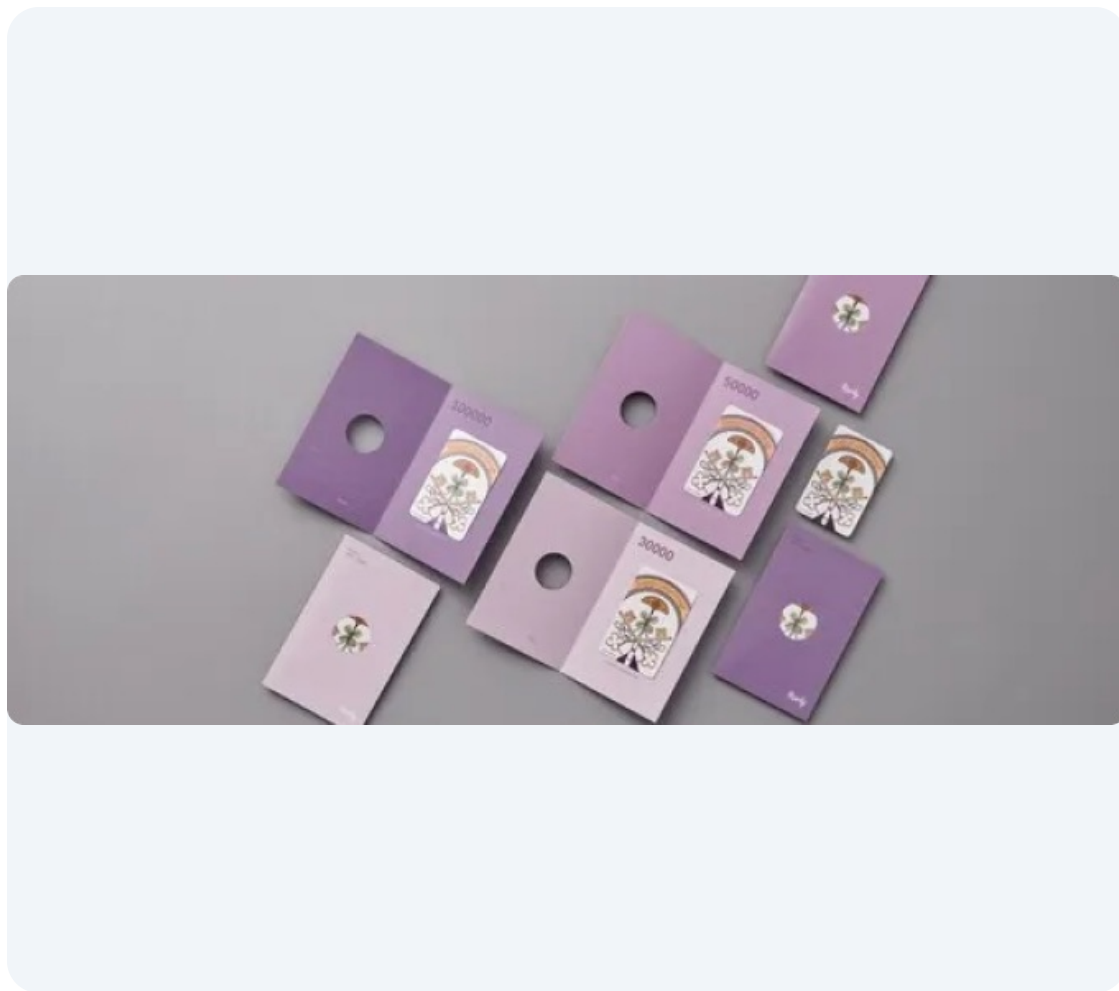
공정마다 원가가 쌓이는 구조를 다른 기준으로 재평가

실행 원가 산정부터 물류 연동까지 직접 설계

처음 다루는 오프라인 공정을 실무로 정립

성과 런칭 완료, 판매량 기대 미달

인편 배송 응대 불만 접수 · 오프라인 품질이 브랜딩을 좌우



컬리 실물상품권 — 브랜드 디자이너 협업 완성

2018 – 2022

코나아이

백오피스기획 팀장

지역화폐 플랫폼과 코나카드 플랫폼을 운영하며 백오피스를 전사 단위로 개선했습니다. 선불 충전금·복지포인트·지류상품권 등 결제 인프라를 0→1로 다수 구축했고, 정부·지자체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팀장으로 조직을 리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 거래액 14조 원이 흐르는 플랫폼**의 구조를 다뤘습니다.

14조

거래액이 흐르는 플랫폼

31개

지자체 지역화폐 통합

200만건

재난지원금 지급

60%↓

가맹점 정산 처리 시간

앱 공통 CMS 표준화

지역화폐 앱 · 코나아이 · 2018.03 - 2018.05

앱이 3배로 늘어도 운영 인력은 그대로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역화폐 앱이 10개에서 30개로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앱마다 규격이 달라 운영자는 지금 무엇을 편집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앱이 늘어날수록 운영 비용이 그대로 따라 늘었습니다. 앱 수가 늘어도 운영 방식은 늘지 않도록 **공통 규칙으로 묶고** 표준화·일괄 처리·실수 방지 장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앱은 3배가 됐지만 운영 인력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제 앱마다 다른 규격과 늘어나는 운영 비용

지역화폐 앱 10개 → 30개 확대를 앞둔 상황

분석 인력보다 시스템을 먼저 바꿀 시점

앱 수가 늘어도 운영 방식은 늘지 않아야 성립

실행 표준화·일괄 처리·실수 방지 장치 설계

공통 CMS 규칙으로 앱별 차이를 흡수

성과 앱 30개 운영

담당자 증원 0명 — 3배 흡수 · 표준 1종 + 앱 식별 UI 적용



앱 홈 화면 — 공통 CMS로 운영

선불충전금 체계 통합

코나머니 · 코나아이 · 2018.06 – 2018.07

기명·무기명을 하나의 충전금 구조로 통합했습니다.

기존 회원 중심 구조로는 **무기명 선불카드 상품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명과 무기명을 따로 만들면 운영 비용도 두 배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둘을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충전금 귀속 주체가 다른 하나의 구조**로 보고, 선불충전금 로직을 카드 단위까지 확장했습니다. 무기명 카드 상품 출시를 가능하게 했고 이후 카드 기반 상품 확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제 무기명 선불카드를 만들 수 없던 구조

회원 중심 설계라 카드 단위 상품이 불가

분석 두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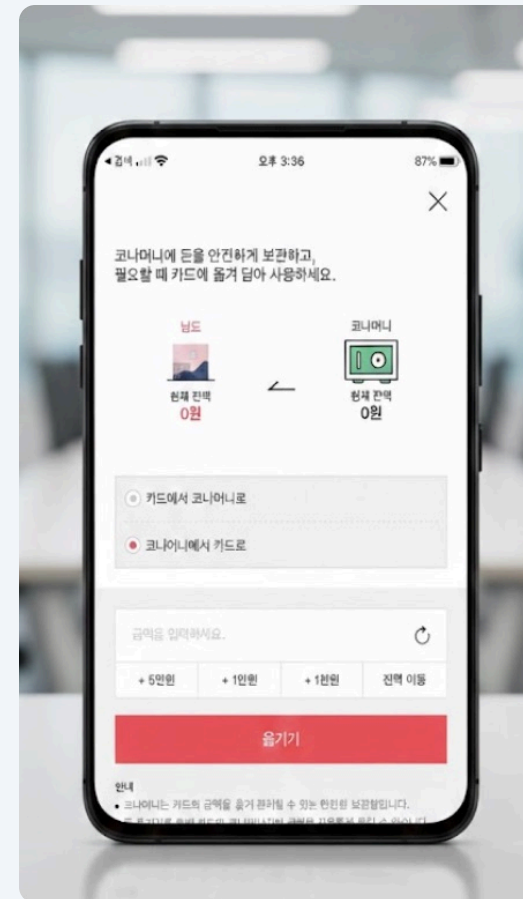
충전금 귀속 주체만 다른 동일 구조로 정의

실행 선불충전금 로직을 카드 단위까지 확장

ASP 다중 사업자 정책 차이를 구조로 흡수, 운영 도구까지 설계

성과 단일 시스템 처리 — 개별 개발 0

무기명 선불카드 정식 출시 · B2B 복지·쿠폰이 같은 구조로 확장



코나머니 이동 화면

B2B 복지포인트 포털

코나아이 · 2018.08 – 2018.10

기업 담당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B2B의 핵심은 기업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운영팀이 대신 처리하는 구조로는 확산이 어려웠습니다. 파트너 포털부터 사원증 카드 제작까지 운영 구조 전반을 직접 설계해 수동 관리를 셀프 운영으로 전환했고, 전사 및 외부 기업 도입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할 도구의 부재

사원증 연동 복지포인트를 신규 구축해야 하는 상황

분석 B2B의 핵심은 담당자의 독립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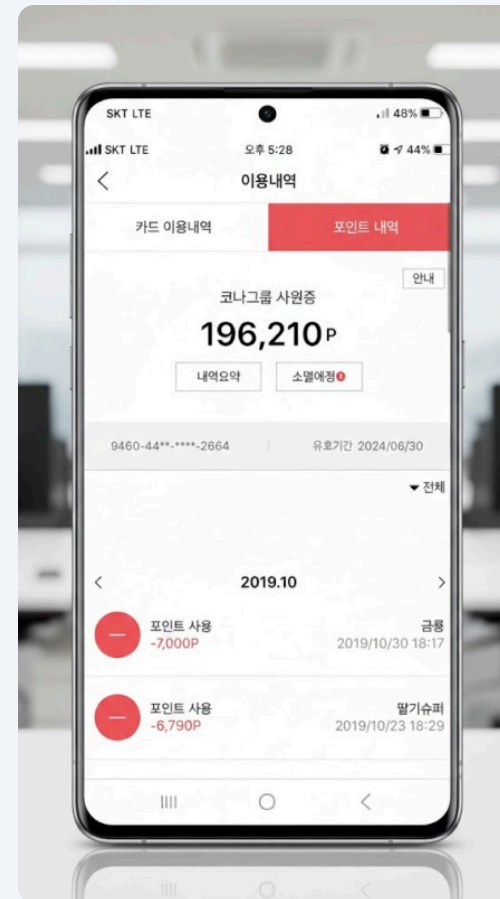
운영팀이 대신 처리하는 구조로는 확산 불가

실행 파트너 포털부터 사원증 카드 제작까지 설계

발급·사용·정산 전반의 운영 구조 정의

성과 사원증 연동 복지포인트 구축

본사 + 외부 기업 1곳 도입 · 수동 관리 → 셀프 운영 전환



코나그룹 앱 포인트 내역

가맹점 모바일 쿠폰

가맹점 백오피스 · 코나아이 · 2018.11 - 2018.12

가맹점마다 따로 만들지 않고 **조합 가능한 모듈**로 바꿨습니다.

가맹점은 프로모션을 하고 싶었지만 **쓸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가맹점마다 원하는 방식이 달라 맞춤 개발로는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따로 만들지 않고 **조합 가능한 모듈 구조**로 바꿔 쿠폰 기능과 정산 구조를 함께 구축했습니다. 시스템은 완성됐지만 실제 사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기능은 만들어질 때가 아니라 효과가 보일 때 쓰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 프로모션 도구가 없던 가맹점

포인트 리워드만 존재하던 플랫폼

분석 맞춤 개발로는 불가능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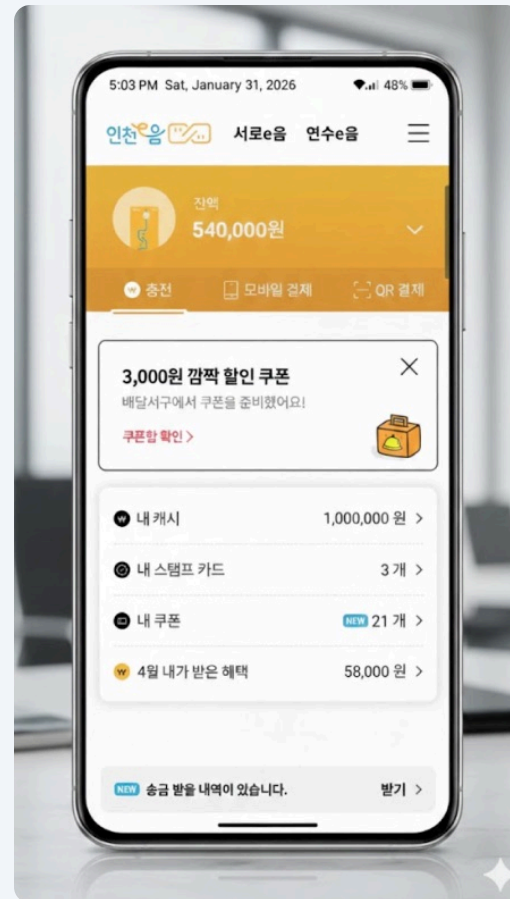
가맹점마다 다른 요구를 조합 가능한 모듈로 흡수

실행 모바일 쿠폰 기능과 정산 구조 동시 구축

발급부터 정산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

성과 쿠폰 발행·정산 기능 구축 완료

가맹점 사용률 기대 미달 · 효과 리포트 부재 → 재발행 안 됨



인천e음 앱 쿠폰 화면

지역화폐 다중 포인트 플랫폼

경기지역화폐 · 코나아이 · 2019.01 - 2019.04

정책을 코드가 아니라 운영에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31개 지자체의 서로 다른 정책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야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따로 대응하면 운영 비용도 지자체 수만큼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정책을 코드에 고정하지 않고 **운영에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다중 포인트를 카드 단위로 설계해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지역화폐 플랫폼이 안착했고 **이 설계 구조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 31개 지자체의 서로 다른 정책

따로 대응하면 운영 비용이 지자체 수만큼 증가

분석 정책은 코드가 아니라 운영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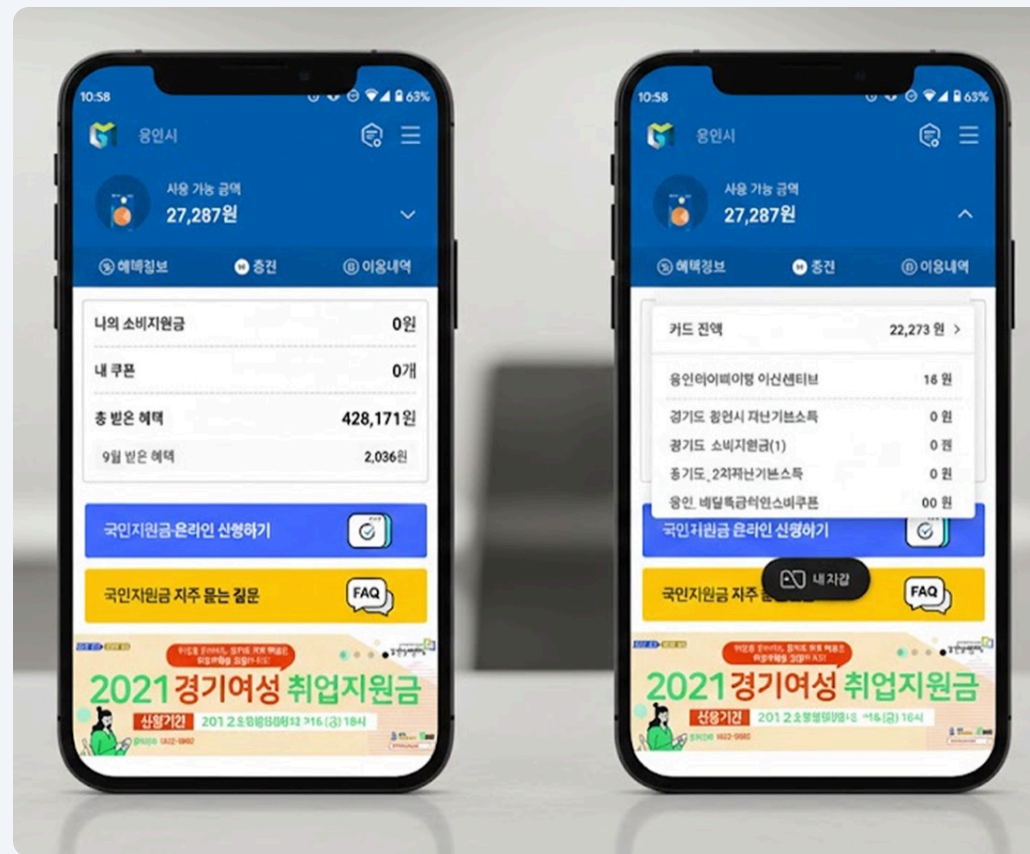
자주 바뀌는 정책일수록 운영자가 직접 바꿀 수 있어야 성립

실행 다중 포인트를 카드 단위로 설계

정책 파라미터화 + 포인트 우선순위 설정 구조

성과 31개 지자체 통합 운영

다중 포인트 정산 자동화 · 2019년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



용인시 지역화폐 앱 — 다중 포인트 지갑(소비지원금·이자인센티브·기본소득)

전사 데이터 분석 시스템

내부 통계 시스템 · 코나아이 · 2019.05 - 2019.08

운영 DB를 건드리지 않고 셀프 조회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결제 볼륨은 빠르게 커지는데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운영 DB에서 바로 뽑는 방식은 빠르지만 결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운영 DB를 건드리지 않고 통계 전용 저장소를 따로 만드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부서 인터뷰로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정의했습니다. 개발팀 데이터 요청은 사라졌고 4개 부서가 셀프 조회로 전환됐습니다.

문제 커지는 결제 볼륨, 볼 수 없는 데이터

필요할 때마다 개발팀에 요청하던 상태

분석 운영 DB 직접 조회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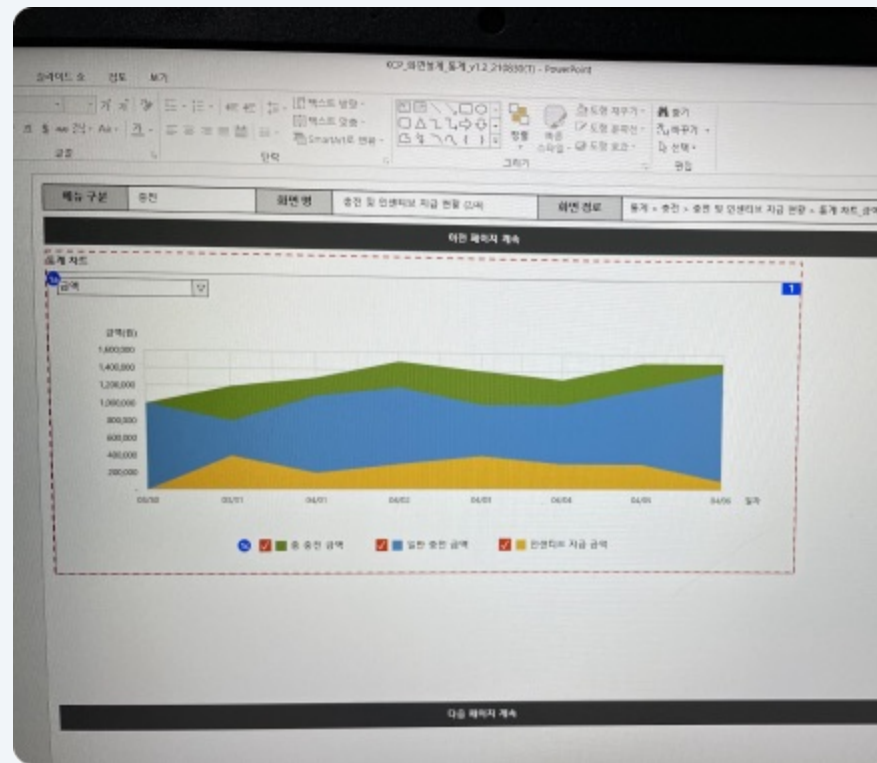
결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별도 저장소가 전제

실행 통계 전용 저장소 + 셀프 조회 화면 구축

부서 인터뷰로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정의

성과 4개 부서 셀프 조회 전환

개발팀 데이터 요청 0건 · 원본 다운로드가 최다 사용 기능



선불충전금 잔액 추이 차트 — 전체 Dashboard

제휴 포인트 전환 구조

제휴 리워드 · 코나아이 · 2019.08 - 2019.11

제휴 정책을 운영에서 설정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제휴 요청은 들어오는데 **건별 개발로는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제휴처 하나만 봐도 정책 항목이 많아 표준화 없이는 확장이 어려웠습니다. 제휴 정책을 코드에 고정하지 않고 **운영에서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정책 설정부터 정산 리포트까지 제휴 운영 전반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인천 이음 오픈에 성공**했고 이후 제휴 확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제 건별 개발로는 불가능한 제휴 확장

외부 제휴사 포인트를 결제 잔액으로 전환하려는 수요

분석 표준화 없이는 확장 불가

제휴처 하나만 봐도 정책 항목이 다수

실행 정책 설정부터 정산 리포트까지 직접 설계

코드 수정 없이 운영에서 신규 제휴 대응

성과 만보기 마일리지 전환 오픈

신규 제휴 = 운영팀 설정만 · 제휴 정산 정확성 확보



서로e음 앱 — 마일리지·스탬프·쿠폰 통합 지급

결제 연동 스탬프

스탬프 서비스 · 코나아이 · 2020.01 - 2020.02

결제가 일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적립**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쿠폰과 포인트만으로는 **재방문 고객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기존 스탬프 서비스는 많았지만 소상공인이 계속 쓰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지역화폐 결제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해 **결제가 일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적립** 되도록 설계하고, 가맹점 관리 사이트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런칭됐지만 **고객 사용률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문제 재방문을 만들지 못하던 쿠폰·포인트

소상공인이 계속 쓸 수 있는 스탬프 구조의 부재

분석 적립의 마찰이 사용률의 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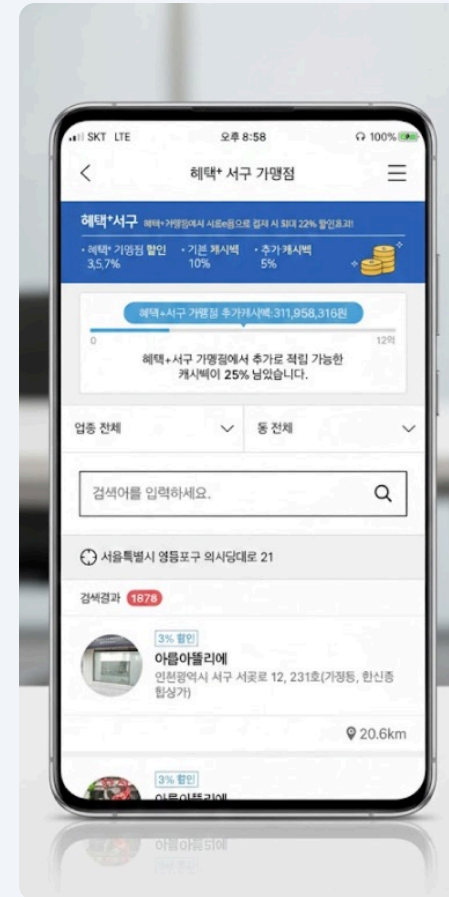
별도 인증 없이 결제만으로 적립되어야 성립

실행 지역화폐 결제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

자동 적립 로직 + 가맹점 관리 사이트 동시 구축

성과 지역화폐 도입과 함께 런칭

방문 횟수·누적 금액 2종 지원 · 수기 적립 0 · 고객 활용은 저조



헤택+ 서구 가맹점 앱 — 캐시백·할인 헤택 및 가맹점 목록

지류상품권 표준 인프라

코나아이 · 2020.05 – 2020.11

사내에 아는 사람이 없던 영역을 제로베이스로 정립했습니다.

지류상품권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지만 **사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레퍼런스도 전담자도 없었습니다.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스템부터 만들 수 없다고 보고,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확인**했습니다. 운영 프로세스를 먼저 정립하고 그 위에 **번호 단위 이력 추적**과 보안 구조를 엮어, 코나아이 지류상품권 표준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문제 레퍼런스도 전담자도 없던 지류상품권

유통 전 과정을 처음부터 정의해야 하는 상황

분석 프로세스 없이는 시스템도 불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확인

실행 번호 단위 검증을 원칙으로 인프라 구축

운영 프로세스 정립 후 보안·추적 구조 적용

성과 지류상품권 운영 표준 수립

수량 불일치 0건 · 보안 사고 0건 · 5개+ 지자체·은행으로 확산



오륙도페이 지류상품권 실물 — 부산 남구 5천원·1만원권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

경기지역화폐 · 코나아이 · 2021.01 - 2021.03

오지급을 사후 수습이 아니라 구조로 막았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200만 건 이상**의 신청 트래픽을 수용해야 했고, 오지급은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내에 이 규모의 공공 지급 경험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 수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지자체·개발팀·사업팀과 협업하며 운영자가 실수할 수 있는 지점을 하나씩 줄여, 큰 혼선 없이 완수했습니다.

문제 200만 건 이상의 신청 트래픽

오지급 한 건이 대규모 민원으로 직결되는 공공 지급

분석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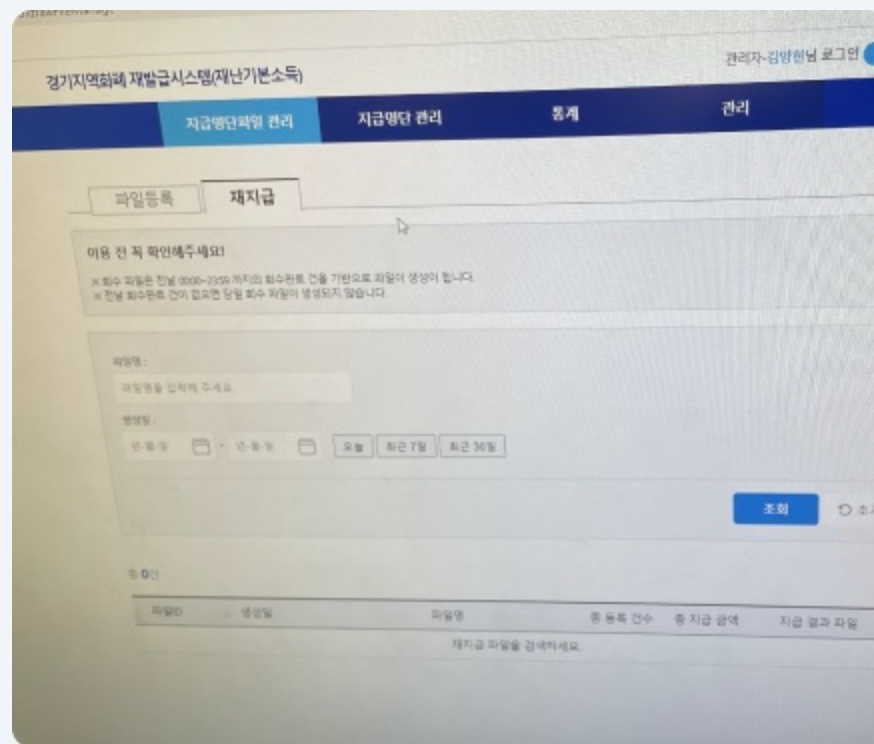
사내에 이 규모의 공공 지급 경험 부재

실행 이중 승인 구조 + 예외 사전 정의

지자체·개발팀·사업팀과 협업하며 실수 지점을 순차 제거

성과 재난지원금 200만+ 건 처리

오지급 VOC 0건 · 이중 승인으로 사전 차단



재난지원금 재지급 관리 화면 — 예외 케이스 사전 정의

가맹점 정산 통합

가맹점 백오피스 · 코나아이 · 2021.02 - 2021.04

매입사가 아니라 가맹점을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같은 가맹점이 시스템 안에 **2개, 많게는 3개의 레코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다중 매입사 환경에서 데이터가 파편화된 상태였습니다. 매입사별로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매입사가 아니라 가맹점을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통합 기준과 정산 구조를 함께 설계해 등록 시간은 줄고 정산·운영은 단순해졌습니다.

문제 2~3개로 나뉘어 있던 같은 가맹점

다중 매입사 환경에서 데이터가 파편화된 상태

분석 관리 기준 자체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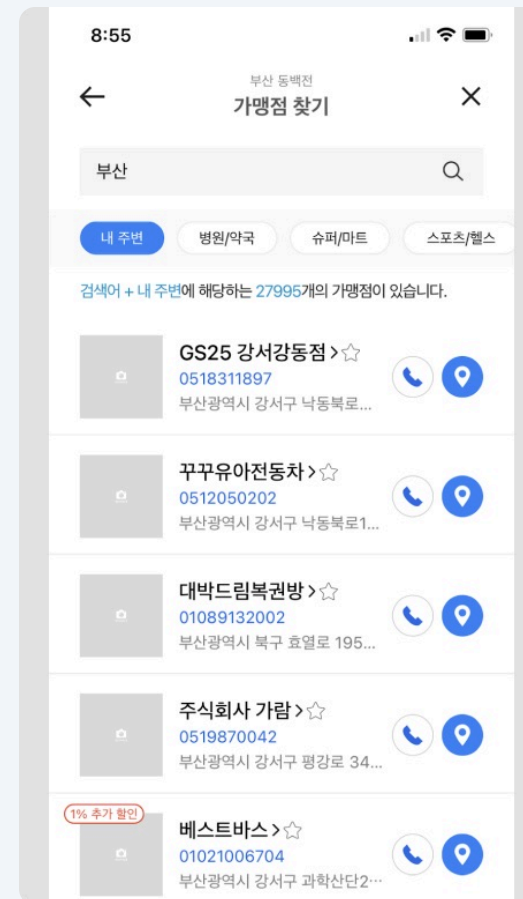
매입사별 관리 구조에서는 문제가 반복

실행 매입사가 아닌 가맹점 기준으로 통합

통합 기준과 정산 구조를 함께 설계

성과 등록 시간 50% 단축

정산 처리 시간 60% 단축 · 매입사 늘어도 공수 비례 안 함



업종 그룹 추가 — BC·KB 매입사 통합 관리 백오피스

차세대 백오피스

통합 백오피스 · 코나아이 · 2021.05 - 2021.12

초기 설계 그대로 쓰던 백오피스를 차세대로 다시 기획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만든 백오피스에 기능만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승인 절차도 화면 템플릿도 없었고, 다중 매입사로 거래가 몇 배 늘면서 조치는 느려졌습니다. 4개 팀 10명을 1개월간 인터뷰해 업무 흐름부터 다시 보고, **운영과 개발 양쪽의 효율**을 기준으로 재설계했습니다. 기획서 6종을 작성해 **개발 착수 직전까지** 끝내고 이관했습니다.

문제 초기 설계에 없던 요구가 계속 얹힌 상태

승인 절차·화면 템플릿 부재, 다중 매입사로 거래량 급증

분석 기능 목록이 아니라 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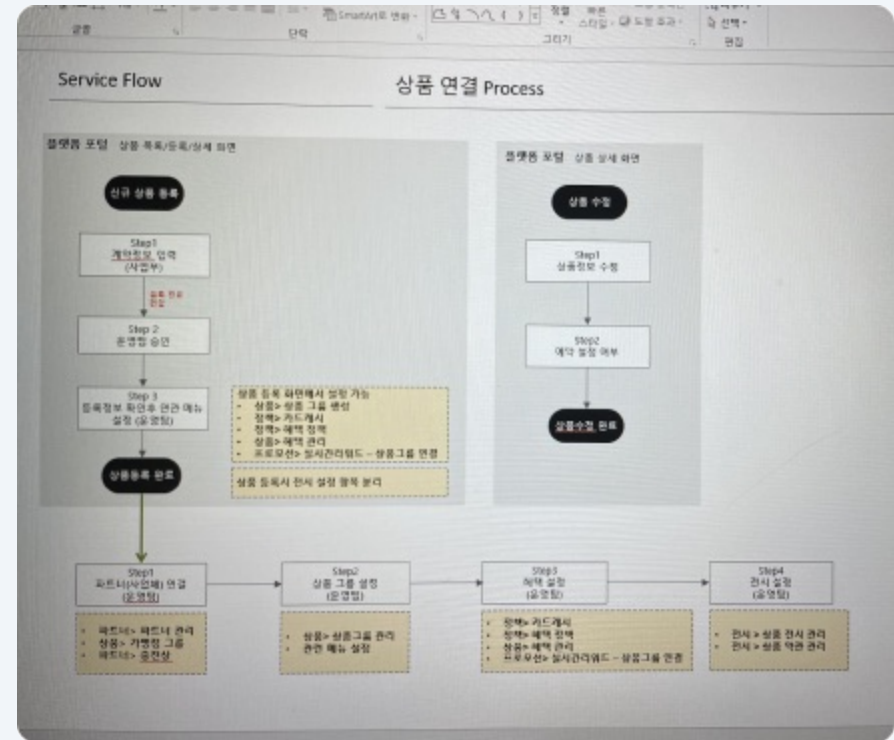
사업·운영·마케팅·정산 4개 팀 10명 인터뷰

실행 운영·개발 효율을 기준으로 재설계

승인 절차 도입 · 화면 템플릿화 · 다중 매입사 조회 재정의

성과 4개 팀 10명 1개월 인터뷰 → 업무 흐름 재정리

승인 절차·화면 템플릿·다중 매입사 조회 기준 정의 · 기획서 6종 작성 완료 후 개발 착수 직전 이관



상품 연결 Service Flow — 신규 상품 등록부터 전사까지

03

AI TECH

직접 만든 AI 자동화 도구 23종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
실제 업무에 적용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종

실제 운영 중인 도구

4개

카테고리

OSS

일부는 오픈소스로 공개

필요해서 만들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AI TOOLS BUILT

23

직접 만든 도구

기획자가 직접 AI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체득했습니다. 실제 동작하는 제품부터 개인 운영 인프라까지.

01 바이브코딩

5종

실제 동작하는 제품. 가드레일·백오피스·챗봇·계산기까지 직접 만들어 운영합니다.

03 개인 AI OS

7종

세션이 끊겨도 맥락이 이어지는 기억·운영 인프라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02 이슈 기반 하네스

7종

AI의 "완료"를 믿지 않고 검증으로 끝을 정하는 작업관리·품질 체계입니다.

04 생산성 자동화

4종

반복되는 데이터 수집·지표 관리·리서치를 자동화해 판단에 쓸 시간을 확보합니다.

PoC 가드레일

바이브코딩 · 직접 제작

AI가 무엇을 할지만 고르고, 실행 가능 여부는 규칙이 판정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환불·결제 같은 **위험이 큰 작업**을 맡기면 가끔 지시를 무시하고 고액을 처리하는 사고가 납니다. 프롬프트를 잘 써도 AI 판단에만 맡기면 막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할지 고르는 단계’와 ‘실행하는 단계’를 분리**하고 그 사이에 사람이 정한 규칙을 뒀습니다. 목적은 기업이 도입 전에 ‘안전하게 맡겨도 되는가’를 **며칠 안에 수치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문제 AI에게 맡긴 고액 처리의 사고

환불·결제에서 지시를 무시하는 사례 발생

분석 프롬프트로는 불가능한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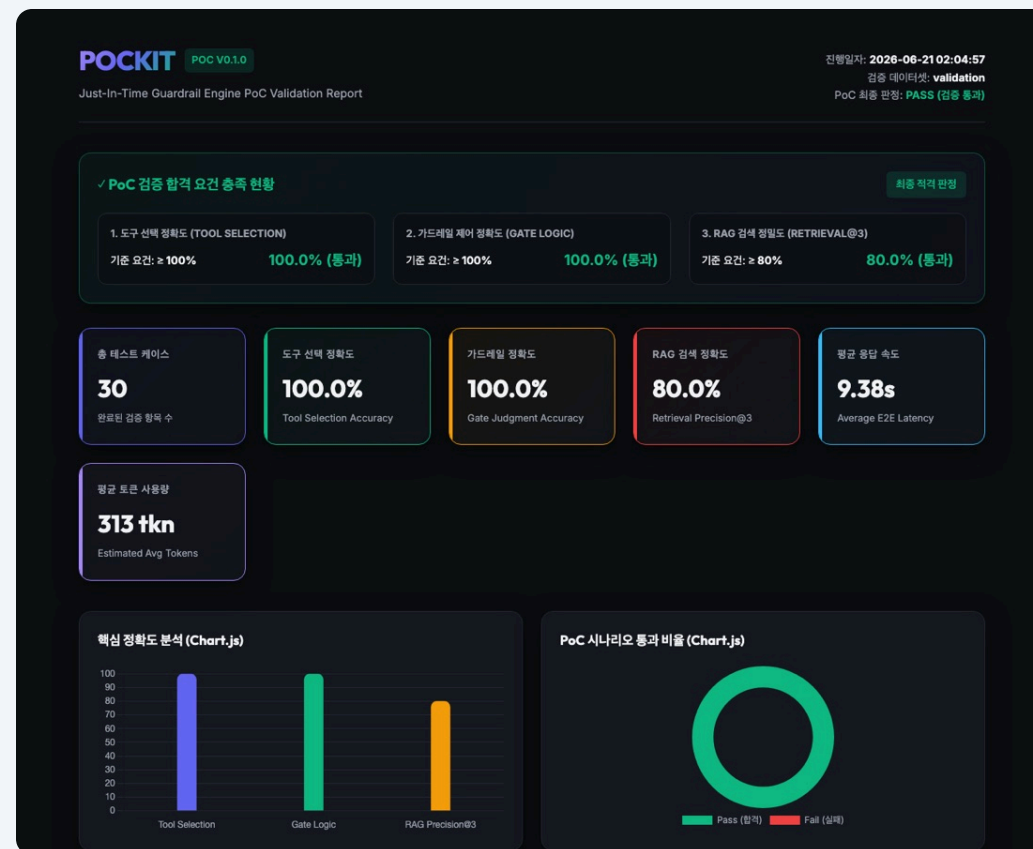
AI 판단에만 맡기면 사고 차단이 구조적으로 곤란

실행 고르는 단계와 실행 단계의 분리

금액·권한에 따라 자동 승인·검토·차단하는 결정론적 게이트

성과 도입 전 며칠 만의 수치 검증

새 분야에도 옮겨 쓰는 재사용 가능한 검증 틀 확보



가드레일 검증 대시보드

LLM 백오피스

바이브코딩 · 직접 제작

LLM이 운영자와 같은 권한 게이트를 통과해 백오피스를 운영합니다.

백오피스는 만들기도 오래 걸리고 쓰기도 손이 많이 갑니다. 새 데이터마다 화면을 개발해야 하고, 조회는 SQL을 모르면 개발팀에 요청해야 했습니다. LLM으로 세 가지를 풀었습니다 — **더 쉽게 만들고**(DB만 붙이면 관리 화면 생성), **더 잘 쓰게 하고**(자연어 조회·운영), **스스로 통제하게**(이상 행동 실시간 감시). 핵심은 이 모든 접근이 **운영자와 똑같은 권한 검사**를 통과하게 한 설계입니다.

문제 만들기도 오래, 운영도 느린 백오피스

새 데이터마다 화면 재개발 · 조회는 SQL 없으면 개발팀 요청

분석 LLM이 운영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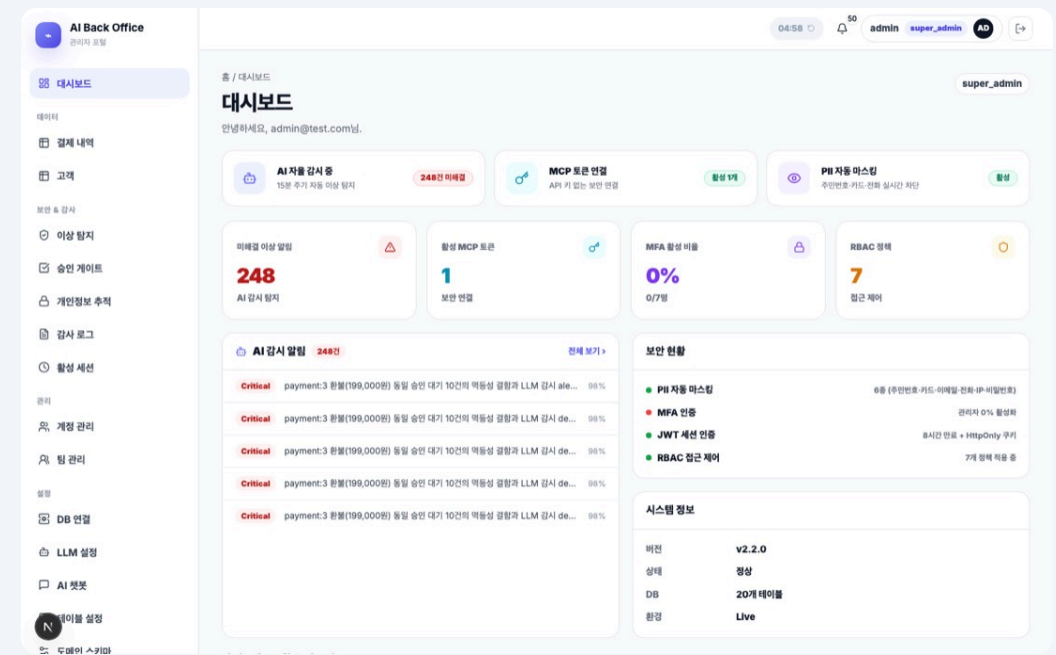
편의(자연어)와 통제(권한·보안)를 한 게이트에서 처리해야 성립

실행 만들기·쓰기·통제 세 가지를 LLM에 위임

DB만 붙이면 관리 화면 자동 생성 · 자연어 조회 · 이상 행동 실시간 감시

성과 운영자와 동일한 단일 권한 검사 통과

AI라고 우회되는 경로 없이 폴스택 자체 구축



LLM 백오피스 대시보드

1인 운영 대시보드

바이브코딩 · 직접 제작

사람과 AI가 같은 데이터를 보게 만들어 30초에 파악합니다.

AI 자동화와 직접 만든 도구가 10개를 넘자 무엇이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됐습니다. 시스템 상태·진행 작업·지식 문서·세션 기록을 매시간 자동으로 한곳에 모아 5개 탭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보는 화면과 AI가 읽는 데이터가 같은 소스라는 점 — 같은 데이터를 두 번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도구가 10개를 넘자 일이 된 현황 파악

시스템 상태·작업·지식 문서가 각기 다른 곳에 분산

분석 사람과 AI가 같은 데이터를 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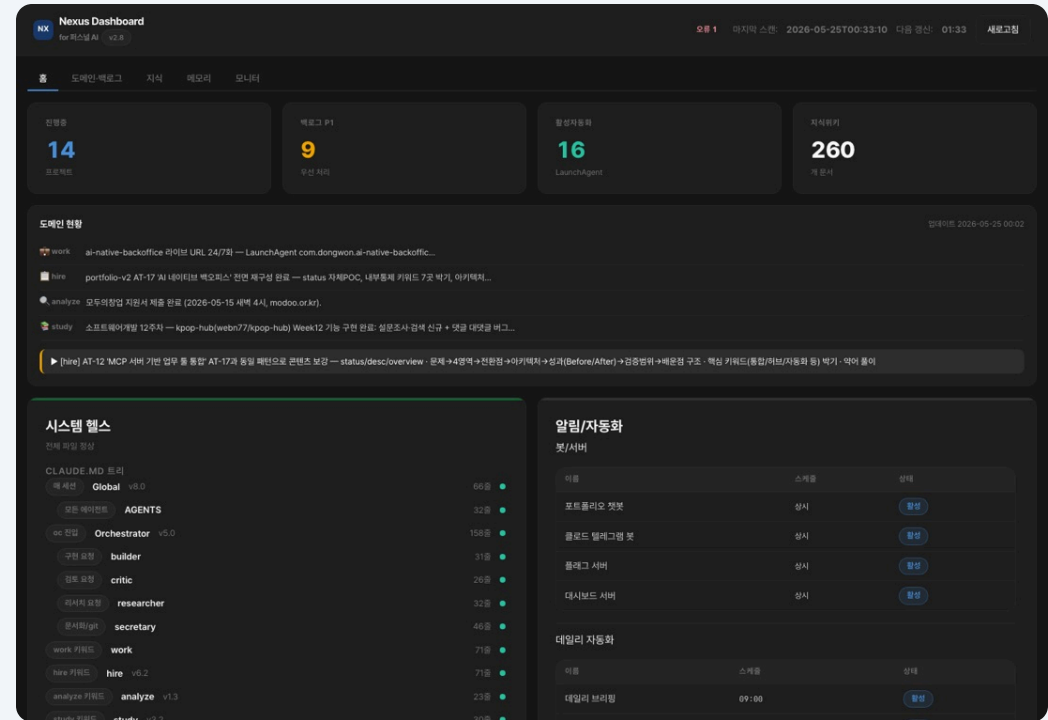
같은 데이터를 두 번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

실행 매시간 자동 수집 후 5개 탭으로 통합

시스템 상태·진행 작업·우선 작업·지식 문서·세션 기록

성과 30초 현황 파악

AI도 한 번의 읽기로 전체 컨텍스트 확보



1인 운영 대시보드 홈

RAG 포트폴리오 챗봇

바이브코딩 · 직접 제작

포트폴리오를 읽는 문서가 아니라 질문하는 도구로 바꿨습니다.

채용담당자의 질문은 보통 구체적입니다. '결제 서비스 경험 있나요', '팀 리드 경험은' — 기존 포트폴리오는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여러 섹션을 직접 읽어야 했습니다. **읽는 문서가 아니라 질문하면 답하는 도구**로 바꾸기 위해 RAG 파이프라인을 직접 구축했습니다. AI가 내용을 지어내지 않고 **작성된 문서에 근거해** 답하며, 비용 0원으로 무중단 운영 중입니다.

문제 길어질수록 찾기 어려운 포트폴리오

채용담당자의 구체적 질문에 여러 섹션을 읽어야 하는 구조

분석 읽는 문서에서 질문하는 도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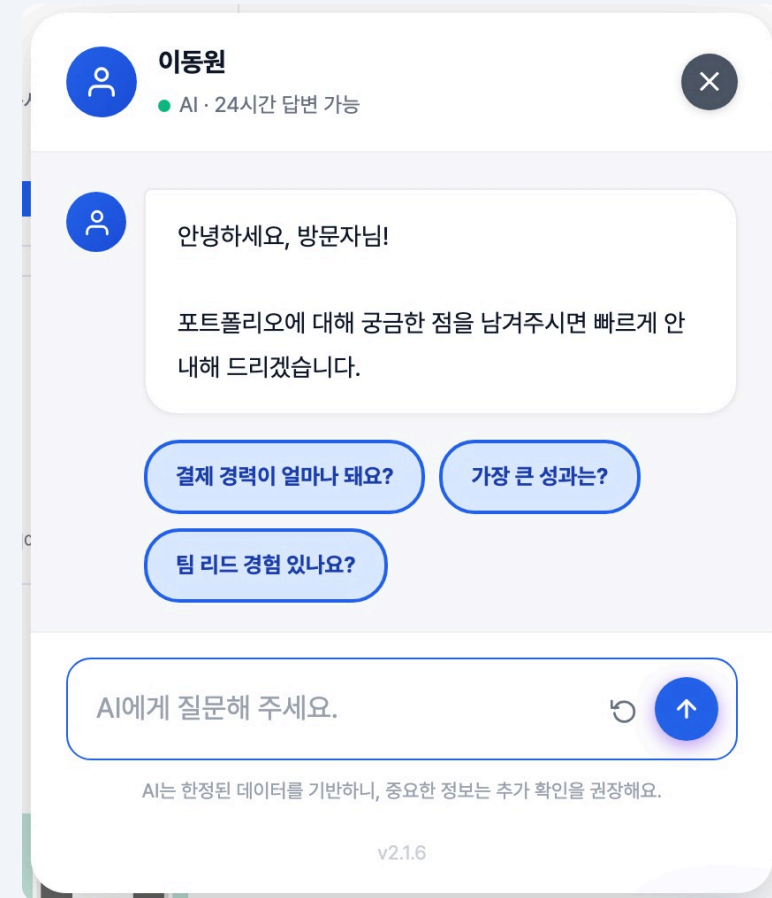
검색 후 근거 기반 생성이 필요 조건

실행 RAG 파이프라인 직접 구축

질문에 맞는 문서를 검색해 그 내용을 근거로 답변 생성

성과 API 비용 0원 · 무중단 운영

환각 없이 작성된 문서에 근거한 응답



포트폴리오 사이트 챗봇 위젯

ModuFlow

이슈 기반 하네스 · 직접 제작

목표부터 릴리즈까지 전부 Git 파일로 남겨 세션을 이어갑니다.

AI에게 일을 맡길 때 채팅 세션이 끝나면 무엇을 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목표·스펙·이슈·실행계획·리뷰·릴리즈를 전부 Git 파일로 남겨 세션이 바뀌어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Claude·Codex 플러그인 구조로 설계해 GitHub에 오픈소스로 공개했고, 설치 한 번으로 두 런타임에서 동일하게 씁니다.

문제 세션이 끝나면 사라지는 결정의 근거

며칠 지나면 무엇을 왜 그렇게 했는지 기록에 미보존

분석 직접 만들 영역과 조합할 영역의 구분

검증된 OSS(Spec Kit·Superpowers)를 가져다 쓰고 연결부만 자체 제작

실행 목표부터 릴리즈까지 Git 파일로 기록

목표·스펙·이슈·실행계획·리뷰·릴리즈 전 단계를 파일로 남겨 인계

성과 Claude·Codex 어디서나 동일하게 동작

플러그인 구조로 설치 한 번 — GitHub 오픈소스 공개

ID	Issue	Status	Phase	Created	Updated	Description	Artifacts	Flags	Memory
backlog - 21									
73	073-reject-constitution-steering 073-project-constitution-steering	backlog	spec	2026-07-05	2026-07-05	[EN] A standing, versioned project constitution (project-wide MUST/SHOULD principles: TDD, injectable-runner pattern, canonical-Markdown rule, model-tier policy, ask-first boundaries)...	1	spec 있음 PM 있음 한글 있음	0
72	072-lifecycle-hooks-automation 072-lifecycle-hooks-automation	backlog	spec	2026-07-05	2026-07-05	[EN] ModuFlow ships a 'hooks' component: a SessionStart hook that injects current project state (".moduloflow/state.json" summary + active issue) into new sessions, and a StopPostToolU...	1	spec 있음 PM 있음 한글 있음	0
71	071-spec-code-converge-check 071-spec-code-converge-check	backlog	spec	2026-07-05	2026-07-05	[EN] After implementation (and any time later), a converge pass assesses the actual code against an issue's spec(plan/tasks and reports divergence — missing, partial, contradicting, or...	1	spec 있음 PM 있음 한글 있음	0
39	Issue 039: Automated Review Checklists And Safety-List Gates 039-automated-review-checklists-and-safety-list-gates	backlog	plan	2026-06-27	2026-06-27	[KO] product.review에 자동 체크리스트 비교를 추가하고 release checker에 lint/security 게이트를 포함합니다.	1	plan 있음 PM 있음 한글 있음	0
38	Issue 038: Worker Context Memory Path Injection 038-worker-context-memory-path-injection	backlog	plan	2026-06-27	2026-06-27	[KO] 작업 실행 중 관련 메모리 경로와 필요한 요약을 워커 프로세스에 동적으로 주입합니다.	1	plan 있음 PM 있음 한글 있음	0
37	Issue 037: Delegation Level Gate And Memory Context Graph 037-delegation-level-gate-and-memory-context-graph	backlog	spec	2026-06-27	2026-06-27	[KO] 위임 수준 게이트를 loop-state에 추가하고 memory 관계 그래프에서 depends_on/references를 지원합니다.	1	spec 있음 PM 있음 한글 있음	0
36	Issue 036: Portfolio Team Dashboard 036-portfolio-team-dashboard	backlog	spec	2026-06-26	2026-06-26	[KO] 프로젝트별 팀 workflow 상태를 포트폴리오 대시보드에 반영해 활성 작업, 리방 쿼, 막힘, 다음 액션을 한눈에 봅니다.	1	spec 있음 PM 있음 한글 있음	0
38	Issue 030: Project Memory Layer 030-project-memory-layer	backlog	spec	2026-06-24	2026-06-24	[KO] 이슈 중심 PM 주제를 넣어 산출물, 감성, 근거, 운영 맥락, 제안을 가능한 프로젝트 메모리를 관리하는 장기 기억 계층을 확장합니다.	1	spec 있음 PM 있음 한글 있음	1
32	Issue 032: Multi-Language Goal Benchmarking and Core MCP Server Integration 032-multi-language-goal-benchmarking-and-core-mcp-server-integration	backlog	execute	2026-06-28	2026-06-28	[KO] 벤치마킹 결과가 다국어 로컬라이제이션과 core MCP 서버 연동을 강화해 플러그인 완성도를 높입니다.	1	plan 있음 PM 있음 한글 있음	0
31	Issue 031: Goal-driven Autonomous Benchmarking and Issue Generation 031-goal-driven-autonomous-benchmarking-and-issue-generation	backlog	execute	2026-06-28	2026-06-28	[KO] 상위 계층 목표가 주어지면 에이전트가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필요한 하위 작업을 이슈로 자동 도출합니다.	1	plan 있음 PM 있음 한글 있음	0

ModuFlow 이슈 대시보드

POKit

이슈 기반 하네스 · 직접 제작

완료는 AI의 보고가 아니라 검증 게이트가 판정합니다.

Codex·Claude처럼 **빠르게 이슈를 만들고 끝내는 AI 도구**를, 사람 주기에 맞춰진 Linear·Jira로는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v1은 Linear+GitHub 연동으로 LLM 스크럼을 자동화하려 했지만 주기 속도 차이로 한계를 확인했고, v2는 **외부 SaaS 없이 로컬 파일만으로** 이슈 카드·스프린트·검증 게이트·세션 인계가 동작하도록 재설계했습니다. 완료 여부는 AI의 보고가 아니라 **doctor 검증 게이트가 판정**합니다.

문제 AI가 빠를수록 커지는 관리 비용

사람 주기의 Linear·Jira로는 작업 속도 추적 곤란

분석 v1 시도에서 확인한 주기 속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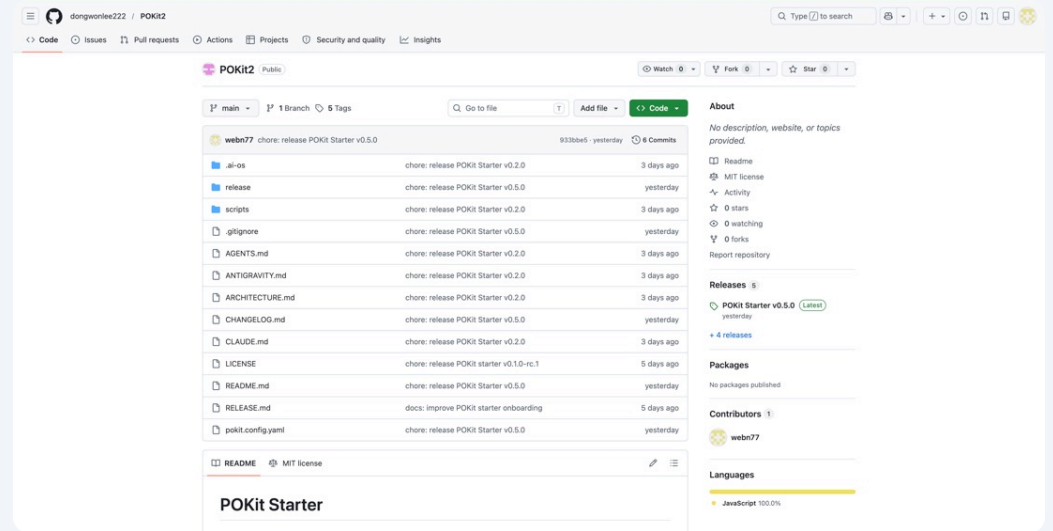
Linear+GitHub 위의 LLM 스크럼은 한계

실행 외부 SaaS 없이 로컬 파일만으로 재설계

이슈 카드·스프린트·검증 게이트·세션 인계를 로컬에서 완결

성과 완료를 doctor 검증 게이트가 판정

Codex·Claude가 같은 이슈 카드 공유 — MIT 오픈소스



POKit GitHub 저장소

디자인 규칙 자동 산출

생산성 자동화 · 직접 제작

브랜드 일관성은 감각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AI에게 매번 '예쁘게 만들어줘'라고 하면 결과는 빠르지만 **산출물마다 색·폰트·여백이 달라져** 같은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일관성은 감각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고 보고, 디자인 기준과 자주 쓰는 화면 요소를 **design.md 한 곳에 정리**해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이제 기획안 한 줄이면 그 기준에 맞는 웹페이지·문서·대시보드가 나오는 **1인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문제 산출물마다 달라지던 디자인

매번 요청하면 색·폰트·여백이 제각각

분석 일관성은 감각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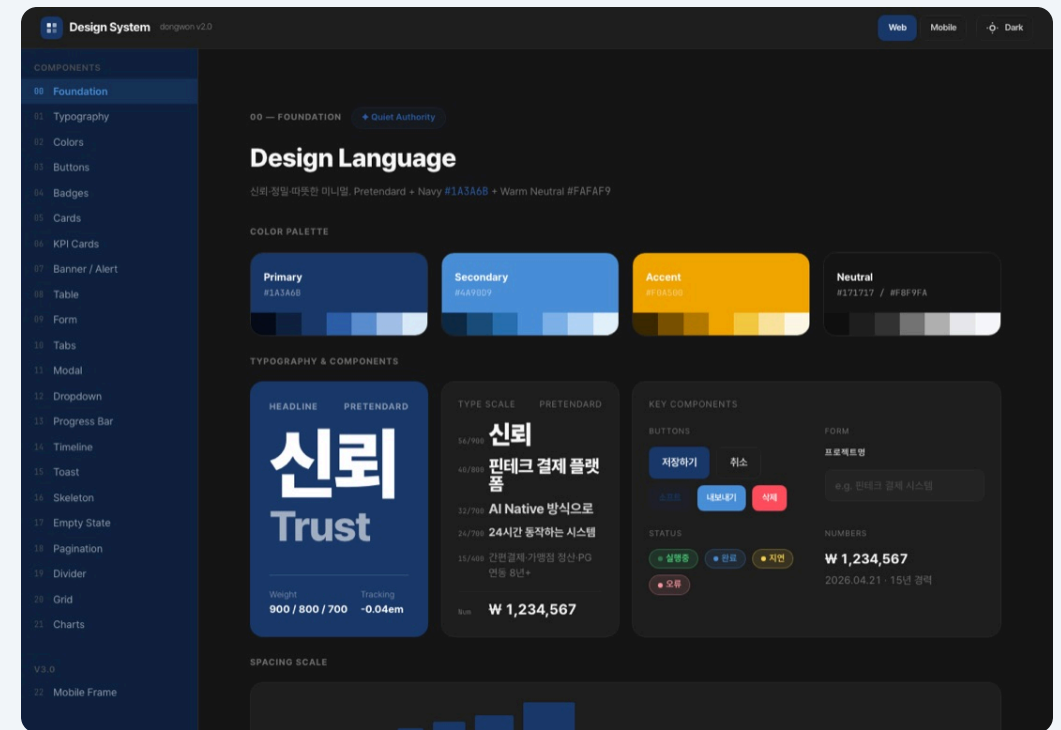
미리 정한 자산을 재사용해야 성립

실행 design.md에 규칙·컴포넌트 정의

색·타이포·간격을 토큰으로 고정, 버튼·카드·표까지 사전 제작

성과 기획안 한 줄로 브랜드 산출물 생성

5개 맥락 프리셋 — 화면·문서·대시보드가 같은 얼굴



디자인 시스템 규칙 정의

데이터 수집·분석 자동화

생산성 자동화 · 직접 제작

3개 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모아 병목까지 진단합니다.

지표를 보려고 사람이 시트를 여는 순간, 그 지표는 매일 보지 않게 됩니다. **3개 서비스의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퍼널로 CAC·LTV와 병목까지 진단합니다. 분석에서 멈추지 않고 **결과를 UI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까지 씁니다.

문제 사람이 열어야 하는 지표의 방치
시트를 여는 순간 매일 보지 않게 되는 구조

분석 수집 자동화가 선행 조건
3개 서비스 데이터를 같은 시각에 모아야 비교 가능

실행 일 단위 자동 수집 파이프라인 구축
퍼널로 CAC·LTV와 병목 구간 특정

성과 진단 결과를 UI 개선까지 연결
분석에서 멈추지 않는 운영



퍼널·CAC 시뮬레이터

AI 운영 모니터

개인 AI OS · 직접 제작

감으로 하던 AI 운영을 데이터로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AI로 매일 작업하면서도 **얼마를 쓰고 얼마나 빠르지를 몰랐습니다**. AI가 남긴 작업 기록을 자동으로 읽어 **사용량·응답 속도·효율을 숫자로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기준값을 넘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찾아내고 어떻게 고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까지 알려줍니다. **7일 25개 작업·평균 응답 51초·자동 진단 10건**이 30분마다 갱신됩니다.

문제 측정하지 않던 AI 비용과 속도

매일 쓰면서도 얼마를 쓰는지 미파악

분석 측정해야 할 3축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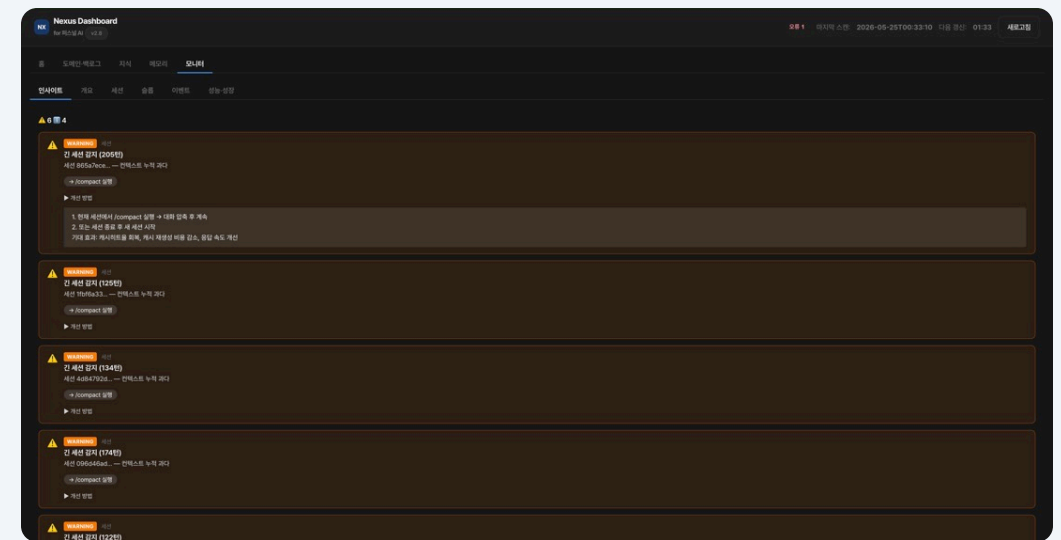
사용량(비용)·응답 속도·효율

실행 작업 기록 자동 수집 + 진단 엔진 구축

기준값 초과 시 원인과 해결책까지 제시

성과 7일 25개 작업 · 평균 응답 51초 상시 추적

30분마다 갱신, 새 도구는 도입 전후 비교 검증



AI 운영 모니터 · 비용 인사이트

뉴스 일일 브리핑

생산성 자동화 · 직접 제작

뉴스를 모으는 일과 해석하는 일을 모두 자동화했습니다.

뉴스를 모으는 일과 **그 뉴스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는 일은 다른데**, 둘 다 자동화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26개 출처를 수집하고 최근 48시간 새 뉴스만 걸러 4개 분야로 요약한 뒤, 종합 인사이트를 생성해 발송합니다. 개인용으로 검증한 구조를 **회사용으로 확장**해, 팀이 Slack에서 모빌리티·에너지 산업 브리핑을 받습니다.

문제 매일 하기엔 부담인 시장 체크

26개 출처를 일일이 여는 시간 소요

분석 수집과 해석은 다른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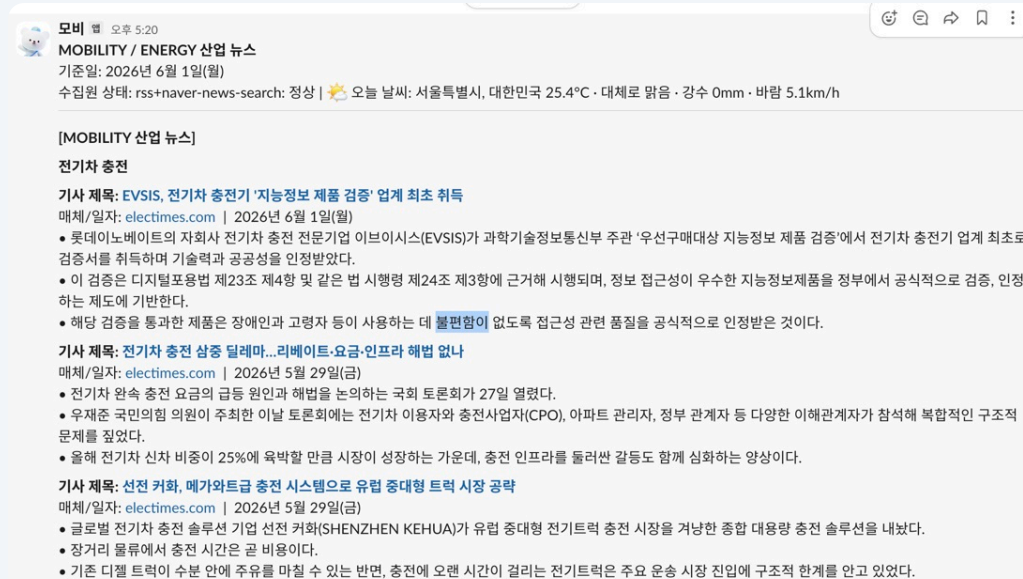
모으는 일과 의미를 읽는 일을 분리해 설계

실행 48시간 필터 + 4개 분야 요약 후 인사이트 생성

매일 정해진 시각 자동 실행, 텔레그램·Slack 발송

성과 개인 검증 후 회사용으로 확장

개인은 Claude·텔레그램, 회사는 Codex·Slack



슬랙 일일 브리핑 발송

그 외 직접 만든 도구 13종

하네스 · 개인 AI OS · 생산성 자동화 전반

품질 관리 & 검증 게이트

AI는 똑똑해도 빠뜨림이 구조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①만든 AI가 자기 일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작업과 검증을 다른 에이전트로 나누고...

병렬 서브에이전트

Spec-Driven(기능 명세 우선)으로 시작했지만, AI를 병렬로 활용하려면 기능 하나를 여러 이슈로 나누고 이슈마다 역할별 워커를 배정...

AI 기반 A/B 테스트 자동화

설계 대안을 병렬로 실행하고 결과를 자동 분석해 최적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백로그 자동화 & 스프린트 실행 시스템

RICE 점수 기반 우선순위 자동 책정 → 스프린트 활성화
→ 기획·구현·배포까지 AI가 단독 완주하는 애자일 파이프라인

세션·채널 연속성

세션이 끊기거나 기기가 바뀌어도 "어디까지 했지"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킬 운영

AI 작업을 스킬로 표준화하며 외부 스킬까지 수십 개를 써봤지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Episodic 회고 메모리

Shinn et al.(2023) Reflexion 방법론을 1인 AI OS 운영에 적용...

장기 기억 위키

AI와 일하며 얻은 결정·노하우·반복 패턴을 오피스디언에 마크다운으로 쌓는 장기 기억입니다.

서비스 지표·전사 KPI 통합 관리 자동화

GA4·Ads·Mixpanel·Datadog·내부 DB를 Google Sheets로 통합 저장 후 이상치·결측치 전처리를 거쳐 Claude...

AI Evals

스킬이 30개를 넘으며 "어제 되던 게 오늘 안 되는" 문제가 찾아졌습니다.

멀티모델 & 토큰 최적화 설계

Haiku·Sonnet·Opus·Codex 역할 분리로 비용과 설계 품질을 함께 잡는 멀티모델 파이프라인

하네스 설계 기반 AI 자동화(Hook)

AI 실행 규칙을 지시가 아닌 이중 통제 구조(실행 권한 + 자동 감시)로 강제하는 환경 설계

EV 손익 계산기

전기차 vs 내연차 손익분기점(TCO)을 계산하는 모바일 웹앱. 명지대 대학원 과제로 React+Supabase 풀스택·DB 설계·회원 인증...

전체 보기

23종 전체의 상세 설명과 화면은 2dw.pages.dev의 AI Tech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 → 데이터 → 실행 → 증명.

일하는 방식

문제 → 데이터 → 실행 → 증명

가설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정책·구조로 풀어 지표로 증명합니다.

도구는 직접 만든다

반복·병목이 보이면 기다리지 않고 AI 자동화로 해결합니다.

고위험 도메인 감각·오너십

라이선스 취득부터 0→1, 운영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EDUCATION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AI정보과학전공 석사 과정 재학 중
명지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사 졸업

기술 스택

Claude API

Claude Code

Codex

Groq

MCP

Python

FastAPI

TypeScript

NestJS

Next.js

Prisma

n8n

ChromaDB

SQLite

Cloudflare Pages

Cloudflare Workers

Notion API

JavaScript

HTML/CSS

Chart.js

Git / GitHub

Obsidian

Figma

활용 방식

직접 쓰기 위해 익힌 스택입니다. 기획 문서로 끝내지 않고, 동작하는 결과물까지 만들어 검증합니다.

채용담당자에게 —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기획부터 실행·운영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PO**입니다. 결제·핀테크 규제 대응(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부터 EV 플랫폼 0→1까지, 데이터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구조로 풀어 지 표로 증명해 왔습니다. 환경부·지자체·현대·KT·BMW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외 프로젝트를 완수했고, 필요한 도구는 **AI로 직접 만들어 2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도입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주도

경영진·현업·외부 파트너를 설득하고, PoC로 빠르게 검증해 도입을 이끕니다.

사내 병목을 안전하게 해결

반복·수작업을 AI로 줄이되,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적용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덕트를 성장

전사 지표 관리 경험으로 성장 레버를 찾고 실행합니다.

규제·대외 협업을 끌고 가는 PO

복잡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제품을 안전하게 성장시킵니다.

THANK YOU

더 궁금한 점은 직접 물어봐 주세요.

이 텍스트에 담지 못한 **전체 프로젝트 29건**과 **AI Tech 23종**의 상세 내용은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dw.pages.dev에 접속하시면 실제 화면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RTFOLIO

2dw.pages.dev

프로젝트 29 · AI Tech 23 상세

EMAIL

webn77@gmail.com

이동원 · Dongwon Lee

GITHUB

github.com/webn77

오픈소스 · 실제 동작 코드